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스타일의 매개효과

엄 세 진*

〈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양육스타일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3차년도(2010년) 자료(23개월에서 31개월에 해당하는 남녀 영아 1,802명과 그 가족)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타일이 부정적이고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분석결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타일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타일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고, 양육스타일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어머니,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 논문접수: 2014. 4. 23 / 수정본접수: 2014. 6. 23 / 게재승인: 2014. 7. 28

*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학전공 조교수

I. 서 론

‘양육’이란 자녀가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기르는 양육자의 태도를 의미하며(이옥순, 2008),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동반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Crick & Booth, 1991). 먼저 스트레스란 개인의 심적 안정이나 타인과의 조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육체적, 정신적 긴장을 뜻하며(문태형, 2003; Lazarus & Folkman, 1984), 양육스트레스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한다(박진성 · 신현정 · 박애순, 2008; Abidin, 1990).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가사노동의 증가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 데 불만과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Abidin, 1992). 결국 자녀양육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지각과 부모의 명령, 비난, 처벌과 같은 강압적인 양육스타일과 연관되며, 이는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문제 발달과 관련이 있다(신숙재, 1997).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양육스타일은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 등 학자에 따라 태도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고 있으나 대부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이형민 외, 2008). 일반적으로 양육스타일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으로(박성연과 이숙, 1990; Becker, 1964),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어머니-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아동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행동적 발달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이경화, 1992). 이처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스타일 간에는 부적인 상관이 있으며(Shea & Coyne, 2011),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취약한 아동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dward, 2010).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성연, 1989; 이원영, 1983; Becker, 1964; Rohner, 1986; Land & Golter, 1988).

한편 자기효능감이란 특별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들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로 정의된다(Bandura, 1977). 특히 행위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 중 자신이 성공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 기대는 자녀양육에 성공적 혹은 부정적으로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어머니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낮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에게 냉담한 양육행동을 보인다(Teti & Gelfand, 1991). 부모의 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을 부정적으로 양육하였다(우희정, 1993).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타일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중 양육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어머니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머니 자신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에 의해 주관적으로 지지된다(Lazarus & Folkman, 1984). 이와 일맥상통하게 어머니의 내적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어머니의 양육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연구결과(Crockenberg, 1981)도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흡하다(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유아기나 학령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연구하였을 뿐 이들 변인들간의 통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타일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3차년도(201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 3차년도 자료는 2008년에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23개월에서 31개월에 해당하는 남녀 영아 1,802명과 그 가족이 조사대상이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아 50.9%(917명), 여아 49.1%(885명)이었고, 영유아의 연령

은 25~26개월 56.4%(1,016명), 27~28개월 22.8%(411명), 23~24개월 17.5%(315명), 29~30개월 3.2%(58명), 31개월 0.1%(2명) 순으로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30~39세가 79.2%(1,419명), 21~29세 16.7%(300명), 40세 이상 3.9%(69명), 그리고 무응답 0.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원 졸업 37.1%(669명), 대학(2, 3년제) 졸업 23.3%(419명), 고졸 이하 27.8%(501명), 대학원 이상 4.9%(89명), 그리고 무응답 6.9%(124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PSID-CDS)에서 사용한 Pearlin Self-Efficacy Scale(Pearlin, Lieberman, Menaghan, & Mullan, 1981)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등의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능한 점수는 4점에서 2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사회적 양육유형

Bornstein 외(1996)가 개발한 양육방식(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3차년도에 사용된 PSQ는 1차, 2차년도에 패널아동의 해당 연령에 적절하지 않아 제외되었던 3개의 문항을 3차년도에 포함하여 총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의 문항은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등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한 점수는 9점에서 4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를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 점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 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하여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후,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TLI, CFI와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이용해서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전체는 양육스타일 전체($r = -.31, p < .01$)와 유의한 부적 상관,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전체($r = .46, p < .01$)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양육스타일 전체는 양육스트레스 전체($r = -.46, p < .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타일이 부정적이고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모형 검증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양육스타일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양육스타일이 매개한다는 이론에 기초한 가설모형에 따

〈표 1〉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상관관계 (N = 1,802)

| 척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자기 효능감 | 1. 자기효능감 1 | | | | | | | | |
| | 2. 자기효능감 2 | .63** | | | | | | | |
| | 3. 자기효능감 전체 | .92** | .89** | | | | | | |
| 양육 스타일 | 4. 양육스타일 1 | -.23** | -.31** | -.30** | | | | | |
| | 5. 양육스타일 2 | -.22** | -.31** | -.29** | .75** | | | | |
| | 6. 양육스타일 전체 | -.24** | -.33** | -.31** | .95** | .92** | | | |
| 양육 스트 레스 | 7. 양육스트레스 1 | .39** | .41** | .44** | -.47** | -.44** | -.49** | | |
| | 8. 양육스트레스 2 | .37** | .36** | .41** | -.34** | -.34** | -.36** | .67** | |
| | 9. 양육스트레스 전체 | .42** | .42** | .46** | -.44** | -.42** | -.46** | .91** | .92** |

**p<.01

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척도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꾸러미로 묶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표변수를 만들었다. 그 이유는 각 문항을 지표변수로 설정할 경우 자유모수치의 증가와 표집수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꾸러미를 묶는 방법은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2개 혹은 세 개의 꾸러미(집단)속에 무작위로 배치할 경우 통계적으로 각 꾸러미 속에 배치된 문항의 모든 특성이 골고루 분배된다(문수백, 2010)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꾸러미화 방법에 따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무작위로 2개의 꾸러미로 나누어 두 개의 지표변수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평가 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χ^2 검증은 표본 크기와 측정변수들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과 함께 적합도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표 2> 참조). Browne과 Cudeck(1993)에 따르면 RMSEA 값은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면 적합한 적합도이며,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이다.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편포도 < 2, 첨도 <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표 3>에 제시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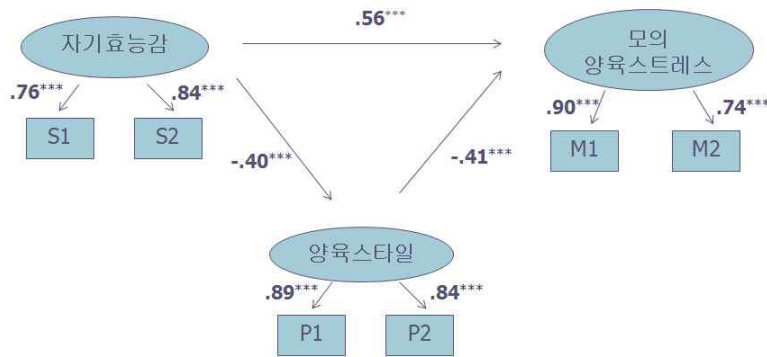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 모델 | χ^2 | df | CFI | TLI | RMSEA |
|--------|----------|----|-----|-----|-------|
| 완전매개모형 | 42.2 | 6 | .99 | .97 | .06 |

〈표 3〉 각 변인별 편포도와 첨도

| 잠재변인 | 측정변인 | 편포도 | 첨도 |
|-------------|----------|------|------|
|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 1 | .40 | -.06 |
| | 자기효능감 2 | .54 | .55 |
|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 양육스타일 1 | -.28 | .86 |
| | 양육스타일 2 | -.11 | .52 |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 양육스트레스 1 | .30 | .10 |
| | 양육스트레스 2 | -.15 | .47 |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타일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와 최종모형은 [그림 1]과 <표 4>와 같다.



*** $p < .001$

〔그림 1〕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분석결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타일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타일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고, 양육스타일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beta = .40$, $p < .001$)과

양육스타일($\beta=-.41, p<.001$)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알아본 결과 첫째, 자기효능감($\beta=.16, p<.001$)은 양육스타일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총효과의 경우 자기효능감($\beta=.56, p<.001$)이 양육스타일($\beta=-.41, p<.001$)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및 직·간접 효과 (N = 1,802)

| | Estimate (Unstandardized) | Estimate (Standardized) | S.E | C.R | Total effect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
| 자기효능감→양육스타일 | -.73*** | -.40*** | .05 | -13.42 | -.40 | -.40 | .00 |
| 자기효능감→양육스트레스 | 1.01*** | .40*** | .73 | 13.88 | .56 | .40 | .16 |
| 양육스타일→양육스트레스 | -.57*** | -.41*** | .04 | -14.83 | -.41 | -.41 | .00 |
|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1 | 1.00*** | .76*** | | | .76 | .76 | .00 |
| 양육스트레스→양육스트레스1 | 1.00*** | .90*** | | | .90 | .90 | .00 |
| 양육스타일→양육스타일1 | 1.00*** | .89*** | | | .89 | .89 | .00 |
|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2 | .93*** | .84*** | .04 | 20.81 | .84 | .84 | .00 |
| 양육스타일→양육스타일2 | .79*** | .84*** | .03 | 27.73 | .84 | .84 | .00 |
| 양육스트레스→양육스트레스2 | .87*** | .74*** | .03 | 25.74 | .74 | .74 | .00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타일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효능감에 따른 양육스타일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전체는 양육스타일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전체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양육스타일 전체는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타일이 부정적이고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에는 부적이 상관이 있으며(Shea &

Coyne, 2011),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하는데 고통을 많이 느끼고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현미와 도현심, 2004)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김중환, 2012)와도 일치한다. 한편 양육스타일의 유형에 있어 Bornstein(2002)은 양육유형을 상황 및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양육유형, 가르치는 양육유형, 한계설정 양육유형 등 총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사회적 양육유형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가르치는 양육유형은 어머니가 영아에게 학습 및 모방,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건과 사물의 특성에 대한 자극을 주는 정도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한계설정 양육유형은 권위와 규칙, 관심을 가르치며 주변 환경을 구조화하는 정도를 말한다(이형민 외, 2008).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연구(2010) 자료에 따르면 Bornstein과 동료들(1996)의 PSQ(Parental Style Questionnaire) 척도 중 사회적 양육유형만을 사용하면서 양육스타일로 표기하고, 그 내용에서는 양육행동과 양육태도와의 차이를 두지 않았기에 양육스타일을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회적 양육유형은 물론이고 가르치는 양육유형, 한계설정 양육유형이 반영된 척도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에 따른 양육스타일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고, 양육스타일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타일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알아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타일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을 부정적으로 양육하며(우희정, 199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할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김미정, 2010). 특히 자기효능감은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을 조절하여 상황에 대한 적응을 돕는 자기반성적 판단으로(신정인, 2011),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이다. 효능감은 상황에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이는 인지적 매개과정을 통하여 행동변화를 가져오게 한다(Bandura, 1986).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자기효능감을 매개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아

의 기질에 대해 어머니가 질문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교사가 개입한 관찰법이나 면접법, 그리고 설문지법 등의 조사방법상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둘째,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질과 양은 달라지기에, 향후에는 양육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발달단계별로 비교 조망하는 종단적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미정 (2010).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박성연·임희수 (2009).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71-82.
- 김종환 (2012). “사회적 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 행동간 경로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9), 3924-3933.
- 김현미·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문태형 (2003). “유치원 교사의 사회적 효능감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내외통제소재간의 관련성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7(1), 27-42.
-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성연·이 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41-156.
- 박진성·신현정·박애순 (2008). “어머니의 사고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55-72.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희정 (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옥순 (2008). “불안정한 양육으로 인해 산만하고 불안한 행동을 보이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놀이치료연구』 12(2), 75-100.

- 이원영 (1983). 아동의 사회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방법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민 · 박성연 ·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u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7-41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and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ornstein, M. H. (2002).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Mahwah, N.J: Erlbaum.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Crick, K. A. and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1, 1042-1051.
- Crockenberg, S. B. (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Kim, K. H., & Kang, H. K. (1997). Research: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Pearlin, L. L.,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London: Sage.
- Shea, S. E., & Coyne, L. W. (2011). “Maternal dysphoric mood, stress, and parenting practices in mothers of head start preschoolers;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3(3), 231-247.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Mothers' Self-efficacy and Child-rearing style on the Parenting Stress

Eom Se 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how all those different child-rearing styles of mothers depending on their self-efficacy would influence the mothers' parental stress. The third annual data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1,802 children - both boys and girls - of ages between 23 months and 31 months and their familie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as utiliz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by means,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tests, Pearson's correlation, and using variables of the mothers' self-efficacy, child-rearing style and parental stress, the study estima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n the correlations of the mothers' self-efficacy with the child-rearing style and the parental stress, the lower the mothers' self-efficacy, the more negative the child-rearing style and the greater the parental stress. In addition,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more positive the child-rearing style, the lower the parental stress. Second, the paths of the structural model and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were analysed and, the results reported that the mothers' self-efficac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hild-rearing style but a positive one on the parental stress. Add to that, it was observed that the child-rearing style is considered significant as it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parental stress. In other words, it was concluded that the effects of the self-efficacy in relation to the child-rearing style and the parental stress appear to be significant and that the self-efficacy is mediated by the child-rearing style.

Key words : mother' self-efficacy, child-rearing style, parenting stress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 주 연*

이 지 영**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의 2곳의 초등학교 총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첫째,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 둘째,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인 소극적, 적극적 대처양식과 우울인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적 증상은 부적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적 증상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적 증상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자아탄력성

· 논문접수: 2014. 4. 24 / 수정본접수: 2014. 6. 23 / 게재승인: 2014. 7. 28

* 세계사이버대학 아동보육학과, 주저자

** 송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교신저자(jiyoung3213@empas.com)

I. 서론

현대사회는 정보화로 인해 급속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가치관의 혼란이나 도덕성의 문제, 정서의 메마름 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인간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은 무한한 경쟁시대와 변화하는 입시에 따른 조기 선행학습, 사교육에 힘들어하면서 다양한 경험부족, 또래와의 관계 부족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발달단계상 신체적, 인지적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 학교 등의 새로운 환경과 사회적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경험하게 되어 이전시기보다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중년기 성인이 경험하는 현상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생활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며 스트레스는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박진아, 2001; 한미현, 1996; Compas, 1987), 이들 연구결과에서도 아동도 성인 못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에도 성장하면서 점차 스트레스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우리 생활에서 일부를 차지하게 됨으로 스트레스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한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Lazarus와 Folkman(1982)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적응적 결과에 차이를 주는 것은 스트레스 개념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처양식에 관심을 갖는 많은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실패하면 부적응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스트레스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인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주요 설명변인으로 탐색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내적 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남희, 2013; 조미정, 최태산, 2011; Lazarus & Folkman, 1984).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또래관계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또래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획득하여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증진되는 등 또래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학령기 시기에는 또래와의 협동과 놀이를 통하여 다양한 능력들을 학습하고, 적절한, 과업수행과 그에 대한 성취를 통해 만족감과 근면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성인기와 달리 아직 성장 발달하는 과정이고, 또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에 스트레스 대처에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술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발달상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긍정적인 발달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임광훈, 2012), 가족과 선생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나타나고 있다(이명화, 2010). 또한 친구관계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가정환경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한선영, 2011). 이처럼 초등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따라서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보고 이를 살펴보는 것이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아동기 우울이란 ‘아동의 정서적인 기분 변화로 슬픔, 침울함, 외로움,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적 장애’를 의미한다. 아동기에도 우울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지속되었는데, 이는 정신분석학적 관점 때문이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우울을 애정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대상에 대한 양가감정과 그에 대한 초자아의 처벌적 영향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분노가 내부로 행하게 되어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내면화된 초자아를 지니지 못한 아동기에는 우울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보았다(신민섭, 김민경, 1994). 아동우울과 관련된 진단기준으로는 DSM-II(1960)에서는 아동기 우울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DSM-III(1984)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성인 우울증의 진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배주미, 2000). 하지만 아동과 성인 간에는 인지, 언어, 사회, 정서적 능력의 발달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의 우울증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Cicchetti & Schneider-Rosen, 1986). 따라서 DSM-III(1987)와 IV(1994)에서는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에 아동과 청소년들은 우울한 기분 대신 짜증을 보일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최윤경, 2010).

이렇게 우울은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지 및 정서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일으켜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rook 등(1983)은 청소년기의 40% 이상이 실질적으로 비참한 느낌이나 우울한 기분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청소년기의 아동들 역시 우울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울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발달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경주와 오경자(1990)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들 때 우울이 급증하게 된

다고 하였다. 아동기 우울의 특징은 첫째로 우울한 아동은 슬픈 감정보다 더 과장되고 지속적인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고 흥분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도 느낀다. 둘째로 침착하지 못하고 초조하며 천천히 행동하고 느리게 말하고 때때로 심하게 울기도 한다. 또한 빈정거림이나 소리침, 파괴와 같은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우울을 표현하기도 한다. 셋째로 우울한 아동들은 무가치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한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학업 수행을 고통스러워한다. 넷째로 사고가 느리고 왜곡되며 미래에 대한 염세적이며 주의집중과 기억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섯째, 그들은 식용이 없고, 항상 피곤해하며 두통이나 위통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또한 이들은 불행감, 슬픈감정, 무력감 등의 정서적인 증세가 주로 나타나며 안정적이지 못하고 낮은 집중력을 보인다. 이러한 영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아동의 경우 슬픈 감정을 느끼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우울한 상태를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동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이은중, 2003). 이에 초등학교 아동의 우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정서적인 어려움인 우울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정서적인 어려움인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울과 함께 최근 연구분야와 상담분야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수준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조절 능력과 인지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민숙 2002; 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잘 적응하지만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외적환경 변화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고(신윤자, 2005),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Larson, 1991). 또한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며(김대권, 2004; 김지영, 2008; 유하영, 2011),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유하영, 2011)와 부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김지영, 2008)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으로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추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의 특성은 사회적 유능감, 자신에 대한 높은 지각력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목표의식 등의 긍정적 기능으로 평가될 수 있다(서지영, 2003).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거나 청소년기로의 발달과정을 거치는데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개인의 중요한 잠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행연구 검토 결과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검증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교사 지지, 또래 지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초등학생의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2곳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107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2주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배포된 설문지는 총 130부이며 이 가운데 115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07부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55.2%, 여자가 44.8%로 나타났다. 학년은 5학년이 46%, 6학년이 57.1%로 나타났다. 형제수는 1명이 28.9%, 2명이 38.3%, 3명 이상이 32.8%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는 고졸 및 중퇴자가 24.3%, 대졸 및 중퇴자가 48.5%, 대학원졸업 이상이 27.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및 중퇴가 16.0%, 대졸 및 중퇴가 62.6%, 대학원 졸업 이상이 21.4%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34세 이하가 17.8%, 35~39세가 20.5%, 40~44세가 34.6%, 45~49세가 22.4%, 50세 이상이 4.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4세 이하가 39.3%, 35~39세가 18.7%, 40~44세가 24.3%, 45~49세가 17.7%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07

| 내용 | 구분 | N(%) | |
|------|---------|----------|----------|
| 성별 | 남자 | 59(55.2) | |
| | 여자 | 48(44.8) | |
| 학년 | 5학년 | 46(42.9) | |
| | 6학년 | 54(57.1) | |
| 형제수 | 1명 | 31(28.9) | |
| | 2명 | 41(38.3) | |
| | 3명 이상 | 28(32.8) | |
| 부모학력 | 고졸 및 중퇴 | 부 | 모 |
| | 대졸 및 중퇴 | 26(24.3) | 17(16.0) |
| | 대학원졸 이상 | 52(48.5) | 67(62.6) |
| 부모연령 | | 부 | 모 |
| | 34세 이하 | 19(17.8) | 42(39.3) |
| | 35~39 | 22(20.5) | 20(18.7) |
| | 40~44 | 37(34.6) | 26(24.3) |
| | 45~49 | 24(22.4) | 19(17.7) |
| | 50세 이상 | 5(4.7) | -(-) |

* 무응답치에 따라 사례수가 다름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과 자아탄력성 변수들을 측정하고자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azarus와 Folkman(1985)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척도를 김정희(1987)가 요인분석을 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정희(1987)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를 적극적 대처로, 소망적 사고와 정서적 대처를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적극적 대처는 .92, 소극적 대처는 .90, 전체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88로 나타났다.

〈표 2〉 스트레스 대처양식

| 요인 | 문항수 | 문항번호 | 신뢰도 |
|--------|-----|-------|------|
| 적극적 대처 | 10 | 1~10 | 0.92 |
| 소극적 대처 | 10 | 11~20 | 0.90 |
| 전체 | 20 | | 0.88 |

2)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

초등학생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1)이 개발한 소아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안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Beck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8-13세의 아동 연령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시점으로부터 지난 2주간의 자신의 기분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각 항목에서 3개의 서술문 중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골라 표시하는 자기 보고식 우울 평정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는 0-2점까지이고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며, 총 우울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가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척도는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정서는 우울한 기분,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행동장애는 공격적 행동이나 대인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말한다. 흥미상실은 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이며, 자기비하는 무가치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생리적 증상은 불면증, 식욕감퇴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우울정서 .88, 행동장애 .86, 흥미상실 .88, 자기비하 .89, 생리적 증상 .89, 전체 우울은 .83으로 나타났다.

〈표 3〉 우울척도

| 요인 | 문항수 | 신뢰도 |
|--------|-----|------|
| 우울정서 | 5 | 0.88 |
| 행동장애 | 7 | 0.86 |
| 흥미상실 | 7 | 0.88 |
| 자기비하 | 4 | 0.89 |
| 생리적 증상 | 4 | 0.89 |
| 전체 | 27 | 0.83 |

3)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을 개인 내적 특성이 위협요인들을 중재하여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을 탄력성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라 이해리와 조한익(200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로써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감정 및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하위 요인별로 3개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경리(2009)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을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 영적 탄력성 4개 영역으로 재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 처리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인지적 탄력성 .88, 정서적 탄력성 .90, 의지적 탄력성 .87, 영적 탄력성 .84, 전체 자아탄력성 .83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아탄력성

| 요인 | 문항수 | 문항번호 | 신뢰도 |
|---------|-----|-------|------|
| 인지적 탄력성 | 6 | 1~6 | 0.88 |
| 정서적 탄력성 | 6 | 7~12 | 0.90 |
| 의지적 탄력성 | 6 | 13~18 | 0.87 |
| 영적 탄력성 | 6 | 19~24 | 0.84 |
| 전체 | 24 | | 0.83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자아탄력성의 각 변인들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검증절차 방법을 세 개의 회귀 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

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1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예측되어야 한다. 2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예측되어야 한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매개변인을 추가했을 때, 예측변인의 효과(β 값)가 유의하지 않으면 즉 0과 다르지 않으면 완전 매개라고 하고, 예측변인의 효과(β 값)가 유의하면 즉, 0보다 크다면 부분매개라고 한다고 하였다(Baron & Kenny, 1986). 이때 해석 기준은 2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가 3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보다 클 경우 부분 매개한다고 말한다.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Peacher와 Hayes(2004)가 제시한 Sobel-검증(Z)을 실시하였다.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사회적 지지원인 또래, 교사 지지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은 탐색적 연구에서 가설검증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중요 변수들 간의 관계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모든 분석에 앞서 요구되는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 영역인 소극적 대처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정서($r=-.467, p<.001$), 행동장애($r=-.472, p<.001$), 흥미상실($r=-.426, p<.001$), 자기비하($r=-.330, p<.001$), 신체적 증상($r=-.379,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정서($r=-.449, p<.001$), 행동장애($r=-.456, p<.001$), 흥미상실($r=-.417, p<.001$), 자기비하($r=-.302, p<.001$), 신체적 증상($r=-.487,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영역인 소극적 대처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탄력성($r=.242, p<.01$), 정서적탄력성($r=.326, p<.001$), 의지적탄력성($r=.375, p<.001$), 영적탄력성($r=.341,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탄력성($r=.303, p<.001$), 정서적탄력성($r=.374, p<.001$), 의지적탄력성($r=.488, p<.001$), 영적탄력성($r=.444,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5〉 상관관계

| | 소극적 대처 | 적극적 대처 | 우울 정서 | 행동 장애 | 흥미 상실 | 자기 비하 | 신체적 증상 | 인지적 탄력성 | 정서적 탄력성 | 외지적 탄력성 | 영적 탄력성 |
|------------|-----------|-----------|----------|----------|----------|----------|-----------|------------|------------|------------|-----------|
| 소극적 대처 | 1 | | | | | | | | | | |
| 적극적 대처 | .471*** | 1 | | | | | | | | | |
| 우울 정서 | .467*** | .449*** | 1 | | | | | | | | |
| 행동 장애 | .472*** | .456*** | .125** | 1 | | | | | | | |
| 흥미 상실 | .426*** | .417*** | .128* | .445*** | 1 | | | | | | |
| 자기 비하 | .330*** | .302*** | .099 | .416*** | .482*** | 1 | | | | | |
| 신체적 증상 | .379*** | .348*** | .151* | .418*** | .441*** | .434*** | 1 | | | | |
| 인지적 탄력성 | .242** | .303*** | .338*** | .326*** | .129** | -.398*** | -.419*** | 1 | | | |
| 정서적 탄력성 | .326*** | .374*** | .337*** | .319*** | .138** | -.387*** | -.394*** | .404*** | 1 | | |
| 외지적 탄력성 | .375*** | .488*** | .355*** | .301*** | .137** | -.397*** | -.426*** | .443*** | .433*** | 1 | |
| 영적 탄력성 | .341*** | .444*** | .254** | .224** | -.113* | -.234** | -.224** | .294** | .346*** | .390*** | 1 |

* p < .05, ** p < .01, *** p < .001

우울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정서와 인지적탄력성($r=-.358, p<.001$), 정서적탄력성($r=-.337, p<.001$), 의지적탄력성($r=-.355, p<.001$), 영적탄력성($r=-.245,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행동장애와 인지적탄력성($r=-.3268, p<.001$), 정서적탄력성($r=-.319, p<.001$), 의지적탄력성($r=-.301, p<.001$), 영적탄력성($r=-.224,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흥미상실과 인지적탄력성($r=-.129, p<.01$), 정서적탄력성($r=-.136, p<.01$), 의지적탄력성($r=-.137, p<.001$), 영적탄력성($r=-.113, p<.05$)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비하와 인지적탄력성($r=-.398, p<.001$), 정서적탄력성($r=-.387, p<.001$), 의지적탄력성($r=-.397, p<.001$), 영적탄력성($r=-.234,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신체적 증상과 인지적탄력성($r=-.419, p<.001$), 정서적탄력성($r=-.394, p<.001$), 의지적탄력성($r=-.426, p<.001$), 영적탄력성($r=-.224,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상관관계 계수가 0.8 보다 커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얻어진 상관관계의 수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 | B | β | R^2 | ΔR^2 | F |
|--------|--------|-------|----------|-------|--------------|------------|
| 우울정서 | 소극적 대처 | -.277 | -.239** | .232 | .219 | 111.244*** |
| | 적극적 대처 | -.377 | -.313*** | | | |
| 행동장애 | 소극적 대처 | -.264 | -.222** | .273 | .266 | 77.351*** |
| | 적극적 대처 | -.333 | -.300*** | | | |
| 흥미상실 | 소극적 대처 | -.245 | -.211** | .206 | .199 | 43.126*** |
| | 적극적 대처 | -.399 | -.338*** | | | |
| 자기비하 | 소극적 대처 | -.200 | -.212** | .242 | .229 | 59.078*** |
| | 적극적 대처 | -.310 | -.299*** | | | |
| 신체적 증상 | 소극적 대처 | -.222 | -.199** | .244 | .221 | 63.234*** |
| | 적극적 대처 | -.300 | -.288*** | | | |

** $p<.01$, *** $p<.00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울정서($F=111.244$, $p<.001$), 행동장애($F=77.351$, $p<.001$), 흥미상실($F=43.126$, $p<.001$), 자기비하($F=59.078$, $p<.001$), 신체적 증상($F=63.23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소극적 대처($\beta=-.239$, $p<.01$)와 적극적 대처($\beta=-.313$, $p<.001$)가 우울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1.9%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정서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소극적 대처($\beta=-.222$, $p<.01$)와 적극적 대처($\beta=-.300$, $p<.001$)가 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6.6%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장애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소극적 대처($\beta=-.211$, $p<.01$)와 적극적 대처($\beta=-.338$, $p<.001$)가 흥미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9.9%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흥미상실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소극적 대처($\beta=-.212$, $p<.01$)와 적극적 대처($\beta=-.299$, $p<.001$)가 자기비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2.9%로 나타났다.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비하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소극적 대처($\beta=-.199$, $p<.01$)와 적극적 대처($\beta=-.288$, $p<.001$)가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2.1%로 나타났다.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신체적 증상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인 소극적, 적극적 대처양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인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적 증상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에 대한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표 7〉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단계 | 독립/매개 변인 | 종속 변인 | B | β | F | R^2 |
|-----|------------------|----------|----------------|---------------------|-----------|-------|
| 1단계 | 스트레스 대처 | 자아 탄력성 | -.455 | -.391*** | 16.376*** | .206 |
| 2단계 | 스트레스 대처 | 우울 | -.459 | -.401*** | 22.102*** | .215 |
| 3단계 | 스트레스 대처 자아탄력성 | 우울 | -.222 -.513 | -.200** -.499*** | 17.231*** | .215 |

** p<.01, *** p<.001

결과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beta=-.391$, $p<.001$)이 우울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beta=-.401$, $p<.001$)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beta=-.200$, $p<.01$), 자아탄력성($\beta=-.499$, $p<.01$)가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사의 지지 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완전매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부분매개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의 자아탄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수준을 증진시켜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수행한 결과 Z값이 1.96보다 큰 3.24($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의 초등학교 아동 총 1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우울,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모두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적 증상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이 부적인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김대권, 2004; 김지영, 2008; 유하영, 2010), 우울과 자아탄력성이 부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극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 양식과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 영적 탄력성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적 증상과 자아탄력성인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 영적 탄력성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 결과는 적극적 대처행동,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과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결과, 즉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거나 적응해야 할 때 좀 더 적응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결과(Gonzales, Tein, Sandler, & Friedman, 2001)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자아탄력집단이 비탄력집단보다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지지추구적인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장경분, 2003).

둘째,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신체적 증상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정서를 잘 조절할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보이고 또래와 더 잘 지낸다는 연구결과(신현숙, 2006; 임연진, 2002)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우울에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자아탄력성이 상호작용하여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수준을 증진시켜 아동의 우울수준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우울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보호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김교현 등, 2005), 생활스트레스와 자살(고재홍·윤경란, 2007)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규명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며, 이는 자아탄력성이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좌절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성격자원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Compas, 1987; Cowen et al, 1992; Garnezy, 1991)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점차 스트레스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초등학교 아동의 심리내적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상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초등학교 아동의 부정적 정서인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동의 자기회복력인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충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우울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초등학교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 이들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직접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나아가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자아탄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 가운데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분석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학년간의 비교를 통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인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민숙 (2002).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 애착 유형과 생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재홍·윤경란 (2007).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1), 185-212
- 김교현·권선중·심미경 (2005).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113-126.

- 김대권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남희 (2013). 초등학생의 성격강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하영 (201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화 (2010).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대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리·조한익 (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53-371.
- 임광훈 (2012).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희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전영주 (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155, 151-167.
- 조미정·최태산 (2011).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55-73.
- 조수철·이영식 (1990). 청소년의 자살. **청협**, 13(1), 27-31.
- 한경리 (2010). 농촌조손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선영 (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sation of behaviou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Hillsdale, NJ: Erlbaum.
- Cicchetti, D., & Schneider-Rosen, K. (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and cognition in maltreated infants: quality of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visual self-recognition. *Child Development*, 55, 648-658.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wen, E. L., Work, W. C., Wyman, P. A., Parker, G. R., Wannon, M., & Gribble, P. A. (1992). Test comparison among stress-affected, stress-resilient and nondassified 4th-6th grade urban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200-214.
- DSM-IV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Garn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 462-466.
- Gonzales, N. A., Tein, J., Sandler, J. N., & Friedman, R. J. (2001). On the limits of coping: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coping of inner city adolescent. *Journal of Adolescents Research*, 16, 372-395.
- Kovacs, G. A. (1981). Suicide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of child psychiatry*, 21, 361-368.
- Larson, R. L. (1991). Latest pulse of earth: evidence for a mid-cretaceous superplume, *Geology*, 19, 547-550.
- Lazarus, R. S., & Folkman, S. (1982).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A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pp.150-170.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e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ABSTRACT

**A Study on Effects of Stress-coping Styles on
Depression in Childre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Lee, Ju Yeon · Rhee Ji Young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in regard of the impacts of stress-coping styles on depression in children. In a nutshell,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ress-coping styles of children and depression were found to be negatively related, while ego resilience and depres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Second, as for the effects of stress-coping styles in children on depression, the more passive and active stress-coping styles of children, the less their depression, behavior disorder, loss of interest, self-abasement and physical symptoms.

Third, high levels of ego resilie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tress-coping styles and depression in children. This finding implies that children, who perceive high levels of ego resilience, cope with stress better and thus reduce depression.

Key words : stress-coping, depression, ego resilience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요구분석

노 성 향*

서 혜 진**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해 보고,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아동의 인식, 운영시간에 대한 아동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 37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는 '특별활동프로그램'(4.16)이 가장 높았고, '건강 및 안전지도'(4.07), '교사와 상호작용'(4.06)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살펴보면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가 가장(39.9%) 많았고, 다음으로는 '다른 곳보다 마음이 편해서'(20.6%),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평일 희망 운영 시간대를 살펴보면 '방과후~7시'(71.8%)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응답자의 28.2% 정도는 '방과후~야간'을 희망하였다.

주제어 :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 논문접수: 2014. 4. 24 / 수정본접수: 2014. 6. 24 / 게재승인: 2014. 7. 29

*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조교수, 주저자

**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child@dhu.ac.kr)

I. 서 론

2012년 말 현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2.3%를 크게 밑돈다(한국경제연구원, 201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5~29세 68%, 30~34세 54.8%, 35~39세에 54.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떨어지다가, 40대에 다시 급격히 올라가 45~49세에 66.4%로 새로운 정점을 찍고 다시 완만히 하락한다(통계청, 2013).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M자형 패턴'을 나타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출산과 육아로(통계청 사회조사, 2013), 여성의 경력단절은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현안과 맞물리면서 정부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유아 대상의 보육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 지원이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지원의 대표적인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 담당 하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운영되고 있다. 동일한 연령을 대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어, 2012년부터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담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부터 빈민지역,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어 설립 운영되었던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법제화된 것으로, 법제화 당시인 2004년에는 지역아동센터 895개소에서 23,34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2013년 6월말 현재 신고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총 4,036개소이고 이용아동수는 109,256명(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3)으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주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고 이들은 빈곤가정의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빈곤은 단지 경제적 자원의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기능 약화, 가족 갈등, 부적절한 부모-자녀관계,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대처수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생활의 다양한 문제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윤혜미, 2005; McGee, 1999; Posner, J. K., & Vandell, D. L., 1994). 선행연구(어효은, 2001; 정익중 외, 2005)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가족의 부모들이 대개 생계를 위해 장시간 혹은 불규칙적인 노동을 하게 되므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절하지 않으며 언어적 훈계보다는 신체적 처벌을 더 자주 사용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 수준도 낮기 때문에 이런 아동과 부모의 단절된 정서적 유대는 우울과 자아존중감

등 아동의 내적인 문제와 관련 있다고 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단순한 보호를 넘어,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훈, 신혜중, 2008), 심리사회적 적응(이경림, 정익중, 2010), 학교적응유연성(유수복, 김현주, 2011), 사회적 능력(오봉욱, 2005), 정신건강(임춘희, 이선형, 이경림, 2010), 일상적 정서경험과 우울 및 스트레스(윤영미, 이완정, 2008)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빈곤 가정 아동의 여러 발달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 양질의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욕구와 시각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서비스 수요자인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선택권 및 참여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지만, 이제까지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논의들은 부모의 선택권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었다. 김경화, 서영숙(2010)은 아동의 방과후 생활이 부모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아동의 자발적 선택인 경우 방과후 생활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서혜전(2012)은 아동이 간식메뉴와 급식 반찬, 다음 달 어디로 문화체험을 가고 싶은지, 토요일에 보는 영화 선택 등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아동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아동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는 복지의 수요자가 아동인 경우 다양한 방법들 통해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직접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생각과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아동의 선택권 및 만족도와 아동의 욕구에 대한 파악이 중요함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의견을 조사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학습지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예체능지도, 건강 및 안전지도, 인성지도,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이유,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에 대한 아동의 요구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필요성과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은 아동의 학년, 부모의 맞벌이 유무, 가족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단간 차이를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추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아동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급변하는 돌봄정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운영시간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최소 6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는 8월에 진행하였다. 대구시는 8개 구, 경상북도는 10개시 13군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시군구 단위로 2~3개 지역아동센터를 무선표집하였으며, 표집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5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378부를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특성 | 구분 | N(%) | 특성 | 구분 | N(%) |
|-----------|-----|-----------|--------------|-----------|-----------|
| 아동의 성별 | 남자 | 162(42.9) | 가족 유형 | 양(兩)부모 가정 | 218(57.7) |
| | 여자 | 216(57.1) | | 한부모 가정 | 80(21.2) |
| 아동의 학년 | 1학년 | 10(2.6) | | 3세대 가정 | 58(15.3) |
| | 2학년 | 20(5.3) | | 조손가정 | 20(5.3) |
| | 3학년 | 84(22.2) | | 기타 | 2(0.5) |
| | 4학년 | 74(19.6) | | 부 외벌이 | 123(32.5) |
| | 5학년 | 89(23.5) | 모 외벌이 | 43(11.4) | |
| | 6학년 | 101(26.7) | 부모의 별이 유형 | 맞벌이 | 202(53.4) |
| | | | 무응답 | 10(2.6) | |

조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162명(42.9%)이며, 여자는 216명(57.1%)으로 여자가 많았다. 아

동의 학년은 6학년이 101명(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학년 89명(23.5%), 3학년 84명(22.2%), 4학년 74명(19.6%) 순이었다. 조사대상의 가족 유형은 양부모 가정(57.7%)이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정(21.2%), 3세대가정(15.3%), 조손가정(5.3%)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별이 유형은 맞벌이(53.4%)가 가장 많고, 부 외벌이(32.5%), 모 외벌이(11.4%)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노성향(2007)과 오아림(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한 뒤, 연구자가 지역아동센터 특성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여 아동복지 전공 박사 2인과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2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만족도 척도는 총 19문항이고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중요함'(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지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3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척도 19문항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식은 주성분분석방법을, 요인회전방식은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모두 고유치(Eigenvalue)는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 적재치 또한 0.6이상의 값을 나타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건강 및 안전지도, 학습지도, 인성지도, 특별활동프로그램, 교사와 상호작용, 예체능지도 등 6가지 요인으로 구분되고, 이 6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79.8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요구도 조사 문항도 노성향(2007)과 오아림(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한 뒤, 연구자가 지역아동센터 특성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여 아동복지 전공 박사 2인과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2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성된 하위 내용은 <표 3>과 같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학년, 가족유형, 부모의 별이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학년과 가족유형, 부모의 별이유형에 따른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

(N=378)

| 문항 | 건강 및 안전지도 | 학습지도 | 인성지도 | 특별활동 프로그램 | 교사와 상호작용 | 예체능 지도 |
|--------------------|-----------|--------|--------|-----------|----------|--------|
| 급·간식 제공 | .824 | .154 | .124 | .183 | .247 | .278 |
| 지역아동센터의 청결상태 | .813 | .045 | .138 | .026 | .258 | -.022 |
| 안전하게 보호 | .684 | .236 | .284 | -.270 | .341 | .056 |
| 건강생활지도(치아관리, 비만지도) | .662 | .235 | .287 | .174 | .028 | .160 |
| 학교 숙제지도 | .241 | .891 | .184 | .223 | .255 | .263 |
| 학교수업 예습지도 | .192 | .853 | .244 | .073 | .108 | .259 |
| 학교수업 복습지도 | .128 | .851 | .275 | -.161 | .199 | .177 |
| 부족한 학교수업 보충지도 | .177 | .791 | .254 | .142 | .247 | .312 |
| 예체능 지도(음악, 미술, 체육) | .256 | .310 | .381 | .018 | .637 | .852 |
| 견학지도 | .403 | -.294 | .224 | .802 | .178 | .160 |
| 문화체험활동(영화, 연극..) | .177 | .195 | .248 | .789 | .168 | -.009 |
| 집단 활동(놀이, 캠프..) | .013 | .255 | .241 | .786 | .208 | .117 |
| 기본생활습관지도 | -.082 | .185 | .812 | .238 | .304 | .087 |
| 사회성 지도 | .208 | .197 | .788 | .043 | .222 | .015 |
| 창의성 지도 | .418 | .261 | .740 | .016 | .208 | .097 |
| 예절교육 | .316 | .258 | .694 | -.062 | .154 | .278 |
| 성교육 | .439 | .249 | .684 | .191 | .274 | .096 |
| 고민 상담 | .209 | .192 | .294 | -.263 | .838 | .245 |
| 선생님과 상호작용 | .036 | .135 | .201 | .288 | .791 | .190 |
| 고유값(Eigen value) | 5.893 | 4.948 | 5.421 | 4.246 | 4.376 | 3.166 |
| 분산(%) | 21.405 | 17.794 | 15.512 | 12.984 | 8.019 | 4.163 |
| 누적분산(%) | 21.405 | 39.199 | 54.711 | 67.695 | 75.714 | 79.877 |
| 문항수 | 4 | 4 | 5 | 3 | 2 | 1 |

〈표 3〉 조사 문항

| 구분 | 내용 |
|-----------------|---|
| 아동의 일반적 특성 | 아동의 학년, 아동의 성별, 가족유형, 부모의 벌이형태 |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 교사와 상호작용, 건강 및 안전지도, 인성지도, 학습지도, 특별활동프로그램, 예체능지도 |
| 지역아동센터의 요구도 | 이용시간,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평일희망운영시간, 주말운영필요성, 휴일 및 방학운영필요성, |

III. 연구 결과

1.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1) 이용현황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현황을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표 4>에 의하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1주일에 ‘5, 6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1학년과 3학년 응답자를 제외한 다른 아동들은 1주일에 ‘5, 6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이 83%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학년에 따른 주당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도

| | |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도 | | | | |
|---------------------|------|--------------|---------|-----------|---------|------------|
| | | 주 1, 2일 | 주 3, 4일 | 주 5, 6일 | 기타 | 전체 |
| 1학년 | N(%) | 1(10.0) | 2(20.0) | 7(70.0) | 0(0) | 10(100.0) |
| 2학년 | N(%) | 0(0) | 0(0) | 18(90.0) | 2(10.0) | 20(100.0) |
| 3학년 | N(%) | 2(2.4) | 8(9.5) | 65(77.4) | 9(10.7) | 84(100.0) |
| 4학년 | N(%) | 0(0) | 6(8.1) | 64(86.5) | 4(5.4) | 74(100.0) |
| 5학년 | N(%) | 0(0) | 2(2.2) | 78(87.6) | 9(10.1) | 89(100.0) |
| 6학년 | N(%) | 0(0) | 10(9.9) | 84(83.2) | 7(6.9) | 101(100.0) |
| 전체 | N(%) | 3(8) | 28(7.4) | 316(83.6) | 31(8.2) | 378(100.0) |
| χ ² - 검증 | | 32.68* | | | | |

*p<.05

2)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

교사와 상호작용, 건강 및 안전지도, 인성지도, 학습지도, 특별활동프로그램, 예체능지도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특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4.16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 및 안전지도’(4.07), ‘교사와 상호작용’(4.06)순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아동의 학년과 가족유형, 부모의 별이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는 ‘인성지도’(F=2.80, p<.05)와 ‘학

〈표 5〉 아동의 학년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의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

| 구분 | 학년 | 인원 | 평균(표준편차) | F | Scheffé검증 | 차이 |
|--------------|----|-----|-------------|----------|-----------|---------|
| 건강 및 안전 | 1 | 10 | 4.13(.810) | F=1.60 | | |
| | 2 | 20 | 4.13(.666) | | | |
| | 3 | 84 | 3.99(.766) | | | |
| | 4 | 74 | 4.28(.654) | | | |
| | 5 | 89 | 3.99(.817) | | | |
| | 6 | 101 | 4.06(.770) | | | |
| | 계 | 378 | 4.07(.759) | | | |
| 학습지도 | 1 | 10 | 4.15(1.081) | F=2.77 * | b | a < b * |
| | 2 | 20 | 4.30(.746) | | | |
| | 3 | 84 | 3.78(.843) | | | |
| | 4 | 74 | 4.18(.791) | | | |
| | 5 | 89 | 3.95(.745) | | | |
| | 6 | 101 | 4.06(.804) | | | |
| | 계 | 378 | 4.01(.811) | | | |
| 특별활동 프로그램 | 1 | 10 | 4.57(.686) | F=1.28 | | |
| | 2 | 20 | 4.20(.670) | | | |
| | 3 | 84 | 4.16(.804) | | | |
| | 4 | 74 | 4.28(.740) | | | |
| | 5 | 89 | 4.09(.850) | | | |
| | 6 | 101 | 4.07(.819) | | | |
| | 계 | 378 | 4.16(.800) | | | |
| 인성지도 | 1 | 10 | 4.20(.892) | F=2.80 * | a | a < b * |
| | 2 | 20 | 3.98(.713) | | | |
| | 3 | 84 | 3.85(.852) | | | |
| | 4 | 74 | 4.30(.777) | | | |
| | 5 | 89 | 3.93(.861) | | | |
| | 6 | 101 | 3.99(.806) | | | |
| | 계 | 378 | 4.01(.832) | | | |

(계속)

| 구분 | 학년 | 인원 | 평균(표준편차) | F | Scheffé검증 | 차이 |
|-------------|----|-----|-------------|----------|-----------|---------|
| 예체능 지도 | 1 | 10 | 4.20(1.006) | F=2.96 * | b | a < b * |
| | 2 | 20 | 4.23(.786) | | | |
| | 3 | 84 | 3.97(.913) | | | |
| | 4 | 74 | 4.22(.712) | | | |
| | 5 | 89 | 3.75(.924) | | | |
| | 6 | 101 | 4.00(.805) | | | |
| | 계 | 378 | 3.99(.858) | | | |
| 교사와 상호작용 | 1 | 10 | 4.10(1.663) | F=1.455 | | |
| | 2 | 20 | 3.85(1.424) | | | |
| | 3 | 84 | 4.04(.898) | | | |
| | 4 | 74 | 4.28(.852) | | | |
| | 5 | 89 | 3.91(.949) | | | |
| | 6 | 101 | 4.08(.891) | | | |
| | 계 | 378 | 4.06(.962) | | | |

* $p < .05$

습지도'(F=2.77, $p < .05$), '예체능지도'(F=2.96, $p < .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3학년 아동이 2학년 아동에 비해 '학습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3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에 비해 '인성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그리고 5학년 아동은 4학년 아동에 비해 '예체능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족유형과 부모의 맞벌이 유형에 따른 차이는 어느 항목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 지역아동센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아동의 학년별로 살펴보면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39.9%)가 가장 많았고, '다른 곳보다 마음이 편해서'(20.6%),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학년에서는 '집에 돌봐줄 성인이 없어서'라는 의견

〈표 6〉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이유

| | |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이유 | | | | |
|----------------|----------|-------------------------|---------------------------|-------------------------|--------------------------|------------|
| | |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 N(%) | 집에 돌봐줄 성인이 없어서 N(%) | 친구를 사귌 수 있어서 N(%) | 다른 곳보다 마음이편해서 N(%) | 전체 N(%) |
| 학년 | 1학년 | 2(20.0) | 6(60.0) | 2(20.0) | - | 10(100.0) |
| | 2학년 | 6(30.0) | 6(30.0) | 1(5.0) | 7(35.0) | 20(100.0) |
| | 3학년 | 29(34.5) | 26(31.0) | 8(5.0) | 21(25.0) | 84(100.0) |
| | 4학년 | 26(35.1) | 15(20.3) | 22(29.7) | 11(14.9) | 74(100.0) |
| | 5학년 | 42(47.2) | 11(12.4) | 22(24.7) | 14(15.7) | 89(100.0) |
| | 6학년 | 46(45.5) | 8(7.9) | 22(21.8) | 25(24.8) | 101(100.0) |
| | 전체 | 151(39.9) | 72(19.0) | 77(20.4) | 78(20.6) | 378(100.0) |
| | | | | χ^2 - 검증 | 48.71*** | |
| 가족 유형 | 양부모가정 | 83(38.1) | 41(18.8) | 50(22.9) | 44(20.2) | 218(100.0) |
| | 한부모가정 | 31(38.8) | 13(16.3) | 19(23.8) | 17(21.3) | 80(100.0) |
| | 3세대 가정 | 30(51.7) | 14(24.1) | 8(13.8) | 6(10.3) | 58(100.0) |
| | 조손 가정 | 7(35.0) | 4(20.0) | - | 9(45.0) | 20(100.0) |
| | 전체 | 151(40.2) | 72(19.1) | 77(20.5) | 76(20.2) | 376(100.0) |
| | | | | χ^2 - 검증 | 18.80* | |
| 부모 별이 형태 | 부(父) 외벌이 | - | 3(37.5) | 2(25.0) | 3(37.5) | 8(100.0) |
| | 모(母) 외벌이 | 15(35.7) | 15(35.7) | 2(4.8) | 10(23.8) | 42(100.0) |
| | 맞벌이 | 94(44.8) | 35(16.7) | 43(20.5) | 38(18.1) | 210(100.0) |
| | 부모 모두 무직 | 7(35.0) | 2(10.0) | 8(40.0) | 3(15.0) | 20(100.0) |
| | 전체 | 116(41.4) | 55(19.6) | 55(19.6) | 54(19.3) | 280(100.0) |
| | | | | χ^2 - 검증 | 24.43** | |

***p<.001, **p<.01, *p<.05

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2,3학년에서는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와 ‘집에 돌봐줄 성인이 없어서’; ‘다른 곳보다 마음이 편해서’가 고르게 나타났다. 4~6학년에서는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지만 ‘친구를 사귌 수 있어서’도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아동의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40.2%), ‘친구를 사귌 수 있어서’(20.5%), ‘다른 곳보다 마음이 편해서’(20.2%) 순으로 나타났다. 양 부모가정과 한 부모 가정의 아동들은 다른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친구를 사귌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많았던 반면, 3세대 가정의 아동들은 다른 가정에 비해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많았다. 부모의 별

이형태에 따라서는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41.4%)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 외벌가정의 아동들은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 ‘집에 돌봐줄 성인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많았고, 맞벌이가정과 부모 모두 무직가정의 아동들은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와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라는 의견이 많았다.

2)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에 대한 요구

(1) 지역아동센터 평일운영 시간에 대한 요구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평일 희망 운영 시간대를 살펴보면 ‘방과후~7시’(71.8%)가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28.2%는 ‘방과후~야간’을 희망하였다.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평일 희망 운영 시간대가 아동의 학년과 가족유형, 부모의 별이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 2학년에서는 거의 모든 아동들이 ‘방과후~7시’ 운영을 희망한 반면 3~6학년 아동의 약 30%정도는 ‘방과후~야간’ 운영을 희망하였다.

〈표 7〉 아동의 학년에 따른 평일 희망 운영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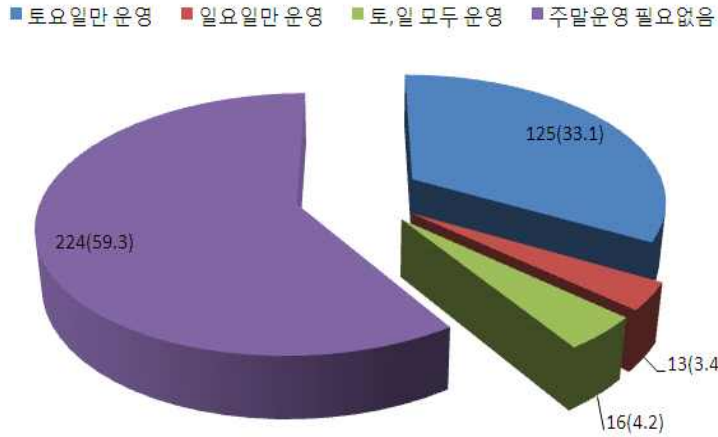
| | | 평일 희망 운영 시간대 | | | |
|-----------|-----|--------------|---------------|-----------|------------|
| | | 방과후~7시 | 방과후~야간 | 전체 | |
| 아동의 학년 | 1학년 | N(%) | 9(100.0) | 0(0) | 9(100.0) |
| | 2학년 | N(%) | 19(95.0) | 1(5.0) | 20(100.0) |
| | 3학년 | N(%) | 57(68.7) | 26(31.3) | 83(100.0) |
| | 4학년 | N(%) | 44(61.1) | 28(38.9) | 72(100.0) |
| | 5학년 | N(%) | 67(76.1) | 21(23.9) | 88(100.0) |
| | 6학년 | N(%) | 72(71.3) | 29(28.7) | 101(100.0) |
| | 전체 | N(%) | 268(71.8) | 105(28.2) | 373(100.0) |
| | | | χ^2 - 검증 | 14.16* | |

*p<.05

(2) 지역아동센터 주말운영에 대한 요구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주말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주말운영 필요 없음’(59.3%)이라고 응답한 아동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토요일만 운영’(33.1%), ‘토, 일 모두 운영’(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N= 378



(그림 1) 지역아동센터 주말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주말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학년과 가족유형, 부모의 맞벌이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가족유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주말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 | N(%) | 주말운영 형태 | | | | 전체 |
|---------------------|------|-----------|---------|------------|-----------|------------|
| | | 토요일만 운영 | 일요일만 운영 | 토, 일 모두 운영 | 주말운영 필요없음 | |
| 양부모가정 | N(%) | 68(31.2) | 4(1.8) | 4(1.8) | 142(65.1) | 218(100.0) |
| 한부모가정 | N(%) | 32(40.0) | 7(8.8) | 6(7.5) | 35(43.8) | 80(100.0) |
| 3세대 가정 | N(%) | 13(22.4) | 2(3.4) | 6(10.3) | 37(63.8) | 58(100.0) |
| 조손 가정 | N(%) | 11(55.0) | 0(0.0) | 0(0.0) | 9(45.0) | 20(100.0) |
| 전체 | N(%) | 124(33.0) | 13(3.5) | 16(4.3) | 223(59.3) | 376(100.0) |
| x ² - 검증 | | 31.43*** | | | | |

***p<.001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주말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면 조손가정의 아동들이 다른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토요일 운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양(兩)부모'가정과 '3세대'가정은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주말 운영

필요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들이 양(兩)부모가정과 3세대 가정에 비해 주말 운영의 필요성을 더 많이 절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부모가정의 아동들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른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일요일만 운영'과 '토, 일 모두 운영'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와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필요성, 운영희망시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아동이 생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에 대한 아동의 요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아동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4.16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 및 안전지도(4.07), 교사와 상호작용(4.06), 인성지도(4.01), 학습지도(4.01), 예체능 지도(3.99)순으로 나타났다. 견학, 영화 관람 등의 문화프로그램, 소집단 캠프와 같은 집단활동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 주는 데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알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정을 대신하여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경험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들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잠재력과 창의력 향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개별 욕구에 토대를 둔 다양한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이 보다 다양한 특별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1학년은 집에 돌봐줄 성인이 없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2,3학년은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와 집에 돌봐줄 성인이 없어서, 다른 곳보다 마음이 편해서가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로는 절대빈곤에 처한 아동들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3년 우리나라 절대아동빈곤율은 8.58%로 979,876명의 아동이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김미숙, 2006),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정원을 고려해 볼 때,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빈곤율, 결식아동 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18세 미만 방과후 방치 아동의 수는 120

만명이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등학교 1학년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서혜진(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연구대상자의 20%가 방과 후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것(일주일에 평균 3.59일정도, 하루를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평균 2.47시간정도 방치)으로 나타났다. 국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2009)에서는 만 6~8세의 약 25%인 10만여명의 아동이 1시간 이상 방과후에 성인 보호자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만 9~11세 아동 1,1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방치시간 정도를 점수화하여 조사한 윤수경(2011)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1일 평균 1.8시간 방치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아동들이 방과후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방과후 보호 서비스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보호 시설이 확대되어 장시간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더 많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집에서 단시간 방치되는 아동을 위해서 가정에서 보호해주는 방과후 보호도우미 제도를 개선·확대하여 부모가 비용의 부담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별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희망 운영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평일 희망 운영 시간대에 대해 아동의 70%이상이 방과후~7시까지로 희망하였으며 초등 4~6학년 아동의 30%는 방과후부터 야간까지의 운영을 희망하였다. 이 결과를 현재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녁돌봄(밤 9시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은 초등돌봄교실의 우선 이용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2009)자료 의하면, 빈곤층의 경우 저녁식사 후 아동이 혼자서 혹은 어른 없이 형제자매와 지내는 경우가 6-8세 10.9%, 12-18세 30.1%로 보고하고 있어 방과후 야간에 방치되는 빈곤층 가구 내 아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내에서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은 주 양육자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고위험군 아동일 가능성이 높고(이경림, 정익중, 2010), 이들은 아동대상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야간에 자신의 가정에 홀로 있는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욕구가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야간보호를 실시해야 하며, 야간보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동의 약 60%는 주말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1학년 아동의 60%는 토요일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들이 양부모가정과 3세대 가정에 비해 주말 운영의 필요성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

동센터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 보호를 할 필요는 없으나 요구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함을 말해준다. 야간 보호와 주말 보호를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교육 기관보다는 방과후 기관에서의 돌봄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더 나은 방과후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또 정책적으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수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아동의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이라는 운영 철학을 수립하고 그것을 '잘' 실현하기 위해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배움과 깨달음(앎)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여 올바른 운영을 위해 배우고 깨달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어떤 배경과 환경속에서 주로 지내는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운영 목표와 목적, 방법이 뚜렷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새로 진입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것은 더욱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중심의 시각에 기반을 두고 운영 의미와 가치를 찾아 그에 부합되는 목적과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화, 서영숙 (2010). 초등학생의 방과후 생활실태 및 선택주체에 따른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0(2), 167-185.
- 김미숙 (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 **보건복지포럼**, 114, 78-90.
- 김양이, 박미란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61-89.
- 노성향 (2007).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2).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연구자료 통권 12-03호.
- 서영숙, 서혜진, 박진옥, 노성향 (2012). **돌봄강사의 자격 표준화 및 신분보장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12-21.
- 서혜진 (2012). 방과후 방치와 아동의 정서발달과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효과. **제2회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학술대회 자료집**.
- 어효은 (2001). 도시빈민지역 아동의 공부방 경험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지영 (2006).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봉옥 (2005).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경험이 농촌지역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7(1), 61-86.

오아림 (2012). 초등학생자녀를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키는 취업모의 동기와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수복, 김현주 (2011). 학교적응유연성 유형에 따른 이용 아동의 세분화(동질적) 집단 특성 연구: 지역아동센터이용 만족도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4), 109-130.

윤수경 (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미, 이완정 (2008). 지역아동센터 레크레이션 활동 참여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정서경험과 우울 및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903-914.

윤희미 (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3), 133-164.

윤희순 (2009). 지역아동센터의 효과분석을 위한 참여관찰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 7(4), 43-55.

이경림, 정익중 (2010).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와 이용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4, 183-206.

이훈, 신혜중 (2008).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홍성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167-193.

임춘희, 이선형, 이경림 (2010).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71-98.

정익중, 김혜란, 혼순혜, 박은미, 허남순, 오정수 (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3), 105-131.

조애저 (2008). 지역아동센터의 빈곤아동 급식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39, 43-5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2009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2). 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3). 지역아동센터현황. <http://www.icareinfo.into>에서 2014년 1월

20일 인출.

최은희, 손영빈, 김현주 (200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2(2), 135-159.

통계청 (2013).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www.kostat.go.kr>에서 2013년 4월 12일 인출.

McGee, C. (1999). *Childhood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Posner, J. K., & Vandell, D. L. (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Child Development*, 65, 440-456.

ABSTRACT

**Satisfaction and needs of student
in Community Children's Center**

Rho, Sung-Hyang · Suh, Hye-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satisfaction and need of student in Community children's center. For this purpose, former dissertation and literatures related to community children's center were reviewed. Questionnaire methods were employed. The data were gathered though the questionnaires from 378 children attending community children's center.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Most of the student were satisfied with cultural experience program in Community children's center. Second, the necessity of Community children's center was environment that student play with safely. Third, student want to run from after school to 7pm.

Key words : Community children's center, Satisfaction, needs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육아 고민과 요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중심으로

서 혜 전*

〈요 약〉

본 연구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공유된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고민의 양상과 요구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인 '쌍둥이 엄마들 모여요' 카페의 '직장맘의 방'에 게시된 게시글과 댓글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고민은 육아와 복직사이 그리고 퇴직 고민, 육아도우미 관련 고민, 키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쌍둥이직장맘들의 육아관련 요구는 쌍둥이 출산시 출산휴가 연장, 쌍둥이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및 육아휴직 9세까지로 연장, 맞벌이하더라도 쌍둥이 출산시 산모도우미 정부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쌍둥이직장맘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지금처럼 '출산 권장'에서 확대되어 출산 이후의 '육아'에 초점을 둔 현실적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함과 일-가정양립정책을 입법화할 때 쌍둥이직장맘 지원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쌍둥이, 직장맘, 육아, 영유아, 온라인 커뮤니티

· 논문접수: 2014. 4. 25 / 수정본접수: 2014. 6. 27 / 게재승인: 2014. 7. 29

*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I.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쌍둥이와 관련된 선행 자료들(김지현, 2007; 양점열, 2002; 장혜영, 2002)은 과거 쌍둥이가 신성시 혹은 기괴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랜 과거가 아니고 20-30년전만 하더라도 쌍둥이를 낳거나 쌍둥이로 태어나면 창피해하거나 어디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난임 치료의 증가로 다태아 출생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다태아 출산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다태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쌍둥이 등 다태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된 이유는 전체 출산율은 저조한데 매년 쌍둥이 출산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2010, 2012)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다태아는 1만3천62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 대비 다태아 비중은 2.74%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또 2012년 한해 태어난 쌍둥이는 1만 5321명이었다. 2011년 1만 3583명에 비해 12.8%(1738명) 늘었고 10년 전인 2002년(9580명)과 비교하면 1.6배로 늘어난 수치로, 전체 출생아 수 중 다태아(쌍둥이 이상) 비율이 3.3%에 해당한다. 다태아의 증가는 산모의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을 하는 산모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로, 산모의 연령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난임 치료도 증가하고 있어 다태아 출생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면서 국가는 2006년부터 난임이나 불임 치료를 지원하고 2012년 7월부터 다태아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일반 임신부보다 20만원 추가한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쌍둥이 출산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쌍둥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출산권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산 이후 ‘육아’에 대한 지원과 제도 마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같이 안아달라고 조르기에 한 놈은 업고 한 놈은 안고 한 시간이 넘도록 서성여도 봤다 옷과 장난감도 똑같은 것으로 두 개를 사야 했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도 정확히 두 쪽으로 갈라 나눠 주려고 노력했다. 한 아이는 침대에서 자겠다고 하고, 한 아이는 바닥에서 자겠다고 한다. 아들은 앉아서 쉬를 한다며 울고, 딸아이는 서서 쉬를 한다며 운다.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서 적신 바지는 무려 스물일곱 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임신 중에 알 수 있었으랴!”(이은경, 샘터 칼럼 중에서)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동일 연령의 두 명 또는 세 명의 아이를 동시에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단태아의 양육과는 힘듦에 있어 차이가 크다. 이는 일반 단태아보다 육아에 더 많은 고충을 겪는 쌍둥이 '육아'에 초점을 둔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통계청(2014)의 국내여성동향 자료에는 2014년 5월 조사 당시 여성 고용률이 50.2%로 전년대비 0.5%p 증가하여 여성고용률 통계 산출시점인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남성 고용률 71.8%와 비교해볼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는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높으나 비정규직에 고용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것(통계청, 2014)을 볼 때 더 확실해진다. 우리나라도 일과 가정 양립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쌍둥직장맘'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쌍둥직장맘의 요구와 고민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 댄에는 좋은 쌍둥이 엄마가 되겠다고 육아서를 보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때는 책속에 나열된 기존의 지식과 상식만으로 쌍둥이를 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무릎에 앉혀 책을 읽어 주라고? 어떻게? 아이가 둘인데. 아이가 밤에 깨서 울면 그냥 울리라고? 어떻게? 한 녀석이 울면 나머지 하나도 깨는데. 아이가 자면 엄마도 함께 자라고? 어떻게? 아이 하나는 말뚱말뚱한데...(이은경, 샘터 칼럼 중에서)

다태아 부모들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육아서를 찾아보지만 쌍둥이 육아와 관련된 서적은 거의 없다. 또 책 속의 지식은 대부분 한 아이 육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고, 쌍둥이 육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많지 않다. 연구자가 쌍둥이 육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연구자 자신이 쌍둥이 유아자녀를 둔 직장맘으로 치열하게 육아 고민을 하였고 여전히 하고 있으나 돌이켜 보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결정과 지식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쌍둥이 육아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나 서적도 없었고 기존의 산재된 육아서들은 쌍둥이 육아에 적용하기도 어려웠다. 쌍둥이 맘들과 함께 터놓고 육아 고민과 기술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싶기도 했으나 시간 제약을 받는 직장맘으로서 더 많은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서도 다른 쌍둥맘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쌍둥이 관련 연구도 대부분 의학 분야에서 많이 이뤄져 왔으며, 쌍둥이들의 양육과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심리학과 아동학에서도 유전과 환경의 영향, 기질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만 있을

뿐, 쌍둥이 양육과 발달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는 기질이 다른 만 3세 쌍둥이를 8개월간 참여 관찰하여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질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탐색한 연구(이은정, 2008)와 쌍둥이 영아의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관련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관계를 알아보는 양적 연구(고은영, 2010)외에는 거의 없다.

이런 연구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쌍둥이 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육아고민은 한 자녀 직장맘 또는 쌍둥이 자녀를 둔 비직장맘들의 육아고민과는 다를 것으로 보고 그들의 고민과 요구를 탐색함으로써 다름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 학문적 가치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 첫째,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육아 고민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 둘째,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육아 관련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쌍둥이 엄마들은 다 모여요」라는 온라인 카페의 ‘직장맘들의 방’에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게시된 게시 글 890건과 답 글 1135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온라인 카페는 쌍둥이 자녀의 사진과 출생연도를 개인정보와 함께 등록해야 가입할 수 있어 진정한 쌍둥이 자녀의 엄마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틀을 마련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9월 기준으로 50,369명의 전국 회원 수를 갖고 있다. 특히 쌍둥이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방’과 ‘세 명이상의 쌍둥이와 다자녀 엄마들의 방’이 마련되어 있어 독특한 그들의 육아 고민과 그들만의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커뮤니티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오프라인 연구를 할 때 주로 인근의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함으로써 생기는 지역 편중 현상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익명성이라는 온라인 특유의 장점으로 인해 보다 솔직하게 연구 대상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온라인 연구가 준 커다란 장점이라 할 수 있다(이승민, 2007).

‘쌍둥이 엄마들은 모여요’ 카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진 중 한 사람이 이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장맘들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직장맘이면서 쌍둥이 육아를 수행하는 엄마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는 이곳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이곳에 글을 게시하는 사람들은 쌍둥이 자녀를 둔 직장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육아 고민의 양상과 요구를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쌍둥이 엄마들은 다 모여요」 온라인 카페의 ‘직장맘들의 방’의 게시글과 댓글 중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게시된 글을 연구자료로 선정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가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 댓글로 답을 얻는 온라인 면담을 활용하였다. 연구 자료로 게시글 뿐 아니라 댓글까지 포함한 이유는 어떠한 주제에 관한 게시 글에 덧붙여진 답글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쌍둥이 직장맘의 관심도 및 문제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답글의 내용이나 분량도 본 게시 글 못지않게 분석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게시글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조나 위로, 선경험 등과 같은 내용의 답변들이 주를 이루었고 게시 글이 어떤 주제에 관한 질문일 경우 역시 같은 주제에 관하여 관심이 있거나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주로 답글을 작성하기 때문에(이승민, 2007), 답글 역시 연구 자료로써 필요하다는 연구자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3. 자료 분석 및 처리

본 연구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분석법(taxonomic analysis)’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심층면담, 참여관찰, 서술적 관찰 또는 문서로 된 자료들의 분석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이용숙 외, 2005).

본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한 자료 분석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행되었다.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이 카페에 그들의 이야기를 올린 게시글 및 댓글을 관찰하여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여러 번 읽어본 후 주제어를 찾아 비슷한 것끼리 범주화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핵심주제들을 찾아냈다. 이를 소주제, 중주제, 대주제의 영역으로 나눠 분석표를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참여 관찰한 자료들의 사례를 코딩하였다. 이렇게 작업한 결과를 바탕으로 1차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주제들은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보완해 나갔다. 그리고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카페 회원 직장맘 2인에게 2014년 4월동안 1차 보고서를 읽게 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 5월 최종 수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모든 직장 맘들이 그렇겠지만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수많은 고민을 겪게 된다. 특히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이후 쌍둥 직장맘으로 표기)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민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는 특정 상황에서 비롯되는 고민과 요구의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된 고민과 요구의 학문적 가치는 무엇인지가 본 연구의 초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이라는 특정 경험이 어떤 고민의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1.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육아 고민

1) 고민 1: 육아와 복직 사이, 그리고 퇴직

육아휴직을 거의 마무리하고 복직을 결정해야 할 순간 쌍둥 직장맘들은 육아휴직을 연장할 것인지, 복직할 것인지 등을 일차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 년 육휴 쓰고 올 팔월이면 복직해야 해요.(중략) 지금은 저랑 필리핀도우미가 같이 얘기 보는 데 복직할 땐 어케 해야 할지.. 결국 제가 육휴를 일 년 더 써야할까요? 더 쓰려고 생각하니 회사에 이만저만 눈치보이는 게 아니에요”(2013.5.30)

“사람 쓰는 건 역시 쉽지 않네요.. 모든 걸 해결하려면 그냥 제가 퇴직하고 집에 있는 게 최고겠죠..”(2013.5.30)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에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여성의 직장유지 비율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복직 후 6개월간 직장유지 비율은 육아휴직 사용자 55.9%, 육아휴직 없이 출산휴가만 사용자 78.9%, 복직 후 1년간 직장유지 비율은 육아휴직 사용자 47.3%, 육아휴직 없이 출산휴가만 사용자 70.9%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더 낮았다.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복직 후 직장유지 비율이 낮다. 쌍둥 직장맘들의 데이터는 없으나, 이 데이터를 통해 쌍둥 직장맘들도 육아휴직을 길게 할수록 복직 후 적응, 직장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육휴 2년 한 1인입니다. 복직 후 적응하시는데 근 1년이 걸린 거 같습니다. 2년 휴직 1년 반 회사생활 후 다시 휴직을 고려중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2년을 제가 직접 애들을 데리고 있으니 엄마랑 교류가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다만, “엄마”하면 다 되는 줄 알아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조금 버겁습니다” (2013.6.1)

“일찍 복직한 직원들은.. 애들이 엄마는 늦게 들어오고 일하는걸 아니까 심하게 엄마에게 기대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2013.4.6)

“복직 후 무조건 계속 일을 하실 생각이시면, 복직 후 적응을 고려해보십시오. 1년 후 복직과 2년 후 복직은 엄청 차이납니다.”(2013.2.15)

이와 관련하여 원숙연(2005)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현실을 조사하면서 아이가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또 한 번 휴직과 퇴사 고민이 시작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 스스로 “직장맘보다 더한 쌍둥이직장맘”이란 표현을 쓴다.

“내년에 초등입학문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시택이고 친정이고 돌봐 줄 사람도 없고 어떤 분은 학원을 돌려라, 어떤 분은 방과후가 있으니 걱정마라 하시는데...”(2013.8.12.)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애들 숙제 봐주고 뭐하다 보면 금방 10시 넘어가고, 엄마 퇴근하기 전에 숙제 다 해놓으라고 해도 잘 통제도 안 되고,요즘 퇴사 고민 중입니다.”(2013.8.14.)

“12월에 퇴사하려고 사표도 썼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애들이 들어서 적응을 잘하고 돌봄 교실이 잘 되어 있음 걱정 안 하셔도 되요.”(2013.3.21.)

쌍둥이직장맘에게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이 이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고민과 해결에 대한 게시글이 주로 엄마들을 통해 게시되고 있어 여전히 쌍둥이 육아와 가사에 있어 여성의 몫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한지영(2011)이 밝힌 바와 같이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성평등적 입장을 고려했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민 2: 육아도우미

쌍둥이맘들은 출산 후 혼자서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자녀를 둔 쌍둥이맘들은 자신과 육아도우미 1명이 함께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쌍둥이직장맘들은 복직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떤 형태의 육아도우미 체제를 갖출 것인지 고민한다. 가족·친척 1명과 일가친척이 아닌 외부의 육아도우미 1명으로 구성하거나, 외부 육아도우미 2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퇴근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등 복직 후에도 안정된 육아체제를 갖추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도우미 한 명을 쓸 것인가? 아니면 두 명을 쓸 것인가?

꼭 2명의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혼자서 쌍둥이 육아를 해야 하는 가정에는 육아도우미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육아도우미의 수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이런 육아도우미 수에 대한 고민은 특히 육아휴직 후 복직 시기가 되면 늘어난다.

“와이프는 올해까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할 계획으로 휴직 중에는 도우미 한 분 이랑 같이하려고 합니다. 회사 복직하고 나서 도우미를 어떻게 쓰셨는지요? 도우미 혼자서 애 둘을 돌보는지, 아니면 도우미를 두 분을 써야 하는 건지요?”(2013.5.9.)

“저는 18개월 때 복직하면서 도우미 한명에게 맡기려니 너무 불안해서 계속 계시던 입주도우미+출퇴근도우미 이렇게 했어요. 세달 지나 어린이집 가고부터는 한명으로 줄였습니다.”(2013.5.10.)

“도우미 회사에 전화해보니, 쌍둥이는 혼자서 보는건 말도 안 된다고...말씀하시는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2013.3.11)

쌍둥 직장맘들이 육아도우미 수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유는 비용, 도우미간의 갈등, 믿지 못함, 어린이집 보내기 원치 않음, 쌍둥이 육아 원하는 도우미가 잘 없음, 혼자서 정말 가능한지 여부 등 때문으로 나타났다.

“쌍둥이는 봐주시는 분들이 부르는 게 값이더라구요..그렇다고 도우미 두 분 계시면..가격도 만만찮고..도우미 분 두 분이 마음이 안 맞으면..서로 안하려고 하고 트러블이 있더라고요..”(2013.5.9.)

“도우미를 두 명 쓰자니 돈도 돈이지만 둘 다 남이니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2013.5.30.)

“친이모가 근처에 살고 계셔서 친이모랑 중국도우미 이렇게 두 분이서 보셨어요. 그러다 3개월 만에 불화가 생겨서 중국도우미가 나가고, 혼자 보시는 거 힘들어서 막내이모랑 같이 보고 계세요.”(2013.6.1)

“친정엄마와 함께 키워왔는데..복직 후 엄마혼자서 보시겠다고 하시는데..과연 혼자서 보실 수 있을까요?” (2013.5.30)

“아주머니 두 명을 고정시켰더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네요... 둘 사이가 너무 좋아도 문제고 나빠도 문제라더니 맞는 것 같아요..한 명이 계시는 게 좋을 듯해서 바

꾸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2013.6.2)

일반적으로 쌍둥 직장맘들은 복직을 하게 되면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때까지는 입주도우미와 출퇴근 도우미의 도움을 함께 받는다. 그런데 쌍둥이의 연령이나 어린이집에 입원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육아도우미의 도움 형태를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 언제쯤 육아도우미 1명으로 줄여도 되는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돌전까지는 애 우유먹이고 재울려면 입주도우미와 출퇴근 도우미 두 명 풀데이로 필요해요. 저희둥이들은 16개월 이구요. 앞으로 한명은 반나절 오시는 분으로 교체 하려구요”(2013.6.4)

“이제 15개월 된 딸둥이 맘입니다.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는 입주이모가 계시어서 애들 보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았는데 애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이모가 계시기가 좀 뭐 하네요 애들 낮에 없는데 그 비싼 비용을 다 지불하기도 그렇고 파트로 바꾸어보려고 합니다(후략)”(2013.4.25)

“저희 친이모 두 분이서 지금은 봐주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도우미를 한명으로 줄여도 되려나요? 이제 12개월 넘은 쌍둥이예요.”(2013.3.4)

“아이들 활동 상황 보가며 판단하셔서 어린이집 보낼 즈음 한분만 계시도 될 듯해요. 반나절은 어린이집 있다 오고 오후~저녁시간에 한 분이 보시기는 크게 무리 없으시네요”(2013.2.22)

쌍둥 직장맘들은 18개월 이전에는 아직 성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쌍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주도우미 한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출퇴근 도우미의 도움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출퇴근도우미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안 일이라는 것이 쌍둥이 육아만이 아니라 청소, 빨래와 같은 가사일도 있는데 비용적 문제로 엄마 부재 시 전적으로 육아만 맡아 줄 도우미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두 명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 어떻게 역할분담 할 것인지 고민도 많다.

“70일된 쌍둥이 엄마예요. 입주이모님이 혼자서 저녁, 밤에는 저랑 같이 쌍둥이 보고 오전8시부터 오후 5시정도까지는 입주이모님 혼자보시고..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4시간 가사도우미 불러서 청소랑 반찬 만들기 시키려구요. 가능할까요?”(2013.6.4.)

“1명이 보시고, 월수금 혹은 매일 3~4시간 가랑 가사를 도와주고 함께 애도 봐주

는 아주머니가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네요.....” (2013.6.5.)

이와 관련하여 육아도우미의 급여에 대한 문의와 고민도 쌍둥 직장맘 고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3-7시까지 어린이집 하원 시켜 와서 제가 올 때까지 봐 주실 분 시간당 얼마정도 드리면 적당할까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7시까지 애들 둘만 봐준다는 조건으로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2013.4.10.)

“저는 1시부터 6시까지 등이 봐주시는데 70 드렸어요. 주5일근무로 해세요..” (2013.4.10.)

“애들 6개월이고 10시~7시까지 저랑 같이 보는데 150드려요.. 쌍둥이라고 하면 다들 많이 바라셔서 그 밑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교포도 경력 있는 분은 150 달라시던데요”(2013.3.11.)

“지금 현재 시어머님과 베이비시터께서...아이를 돌봐주고 계신데...베이비시터(오전9시~오후 6시)페이는 13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2013.3.11.)

(2) 육아도우미의 적절한 업무량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을 한 쌍둥이 자녀를 둔 직장맘들은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퇴근 도우미를 활용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입주도우미와 출퇴근 도우미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입주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 쌍둥이 직장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점이 있는데 입주도우미의 업무량에 관한 문제이다.

“직장맘이고 5시에는 퇴근해서 아가들 함께 봐요. 아가들은 60일정도 되었고 아직 밤에도 3시간마다 분유먹이고 있어요. 제가 출근 하게 되자 혼자 아가들을 볼 자신이 없다고 하여서 9시간 출퇴근도우미를 구했어요. 출퇴근 도우미는 9시에 출근해서 청소, 반찬 만들기 하시고, 아가들이 동시에 울거나 떼 쓸 때 입주이모님과 함께 아가들을 보시구요. 물론 아가들 보는 것이 첫째 중요한 일이고, 남은 시간에 가사일 하시라고 몇번씩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출퇴근도우미 있을 때 입주이모님은 1-2시간 주무시라고 했구요, 입주이모님은 아가들을 종일 전담하시고 밤에도 제가 피곤해서 잠들면 아가들 계속 보시고 가사일로는 있는 반찬으로 아침차려주시고, 저녁 차려주시고 설겅이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이 업무량이 많은 건가요??”(2013.1.8)

최정신(2011)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유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며, 고은영

(2010)은 양육관련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줄고 아이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쌍둥이직장맘의 쌍둥이 육아의 현실적 지원을 위해서는 다태아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어린이집 양육 선택, 새로운 고민에 봉착

쌍둥이직장맘 중에는 육아도우미를 쓰지 않고 어린이집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쌍둥이 육아에 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통한 양육시 직장맘과 육아, 가사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15개월 된 딸둥이 맘인데, 애들이 어린이집도 다니고 해서 애들 낮에 없는 데 그비싼 비용을 지금 입주이모에게 다 지불하기도 그렇네요. 저녁에 애들 데려오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담날 깨워 먹이고 입히고 데려다주고, 청소, 빨래, 밥하고 설거지 등 혼자 감당 할 수 있을지 그저 막막합니다.”(2013.4.25.)

“저도 조만간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걱정애 봉착할 거 같아요”

도와주는 분 없이 남편과 둘이서 보는 경우 결국에는 하원 후 퇴근까지 아이돌보미 도움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쌍둥이가 아플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아이돌보미나 하원 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한다.

“4살까지 제가 데리고 있다가 이제 유치원을 보냈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아파오기 일수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많이 아프지 않으면 유치원에 보내라고 주위에서들 말할하는 데 또 제가 끼고 있을 수도 없고..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당연히 아프면 제가 데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일 이란 건 알지만 한명이 안가면 또 한 명마저 안 가려고하니..”(2013.5.30.)

개별 지원과 도움 없이 엄마 혼자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의 체력, 직장 업무 양, 직장 상황, 가사와 육아 분담 상황, 아기들 상황 등이 복직 후 도우미 도움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에 있어 남성, 아빠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26개월에 복직하면서 혼자서 하고 있어요. 퇴근하면서 애들 데리고 오구 퇴근하

자마자 밥 올리구 애들 씻기구 나와서 밥 먹이는 동안 빨래 돌리구 밥 먹이고 설거지하구 어린이집 가방 확인하고 애들 다음날 옷 미리 챙겨 놓고 빨래 다되면 널고 애들은 10시전에 무조건 재워요 그렇게 패턴을 짜놓으니 좀 편해요”(2013.5.1.)

3) 고민 3: 키움

(1) ‘쌍둥이 따로 키워도 문제없어’ 아니면 ‘같이 키워야

쌍둥이 아빠인 인기가수 씨는 한 방송에 나와 “쌍둥이 육아는 아이가 들어서 2배가 아니라, 단태아보다 3배, 때론 4배의 힘이 더 든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특히 쌍둥 직장맘의 경우 낮의 직장 업무 때문에 밤에 잠을 푹 자야 함에도 쌍둥이와 함께 잘 경우 수유 및 뒤척임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없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두명의 입주 육아도우미가 있으면(한 사람은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인 경우도 포함) 분리 수면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께 한명씩 맡겨 키우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들 낳고 시어머니 애들을 봐 주셨어요 출산휴가 3개월 끝나고 두 달 정도 애들 둘 다 봐주시다 너무 힘들어 하셔서 큰둥이를 친정이 맡긴지 딱 1년 되었네요(중략). 큰둥이는 친정에서 작은둥이는 시댁에서 크고 있어요...근데 큰둥이는 친정어머니의, 작은둥이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2013.6.7.)

“애들 같이 자라는 게 좋아요~같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심히 애들은 일 년 정도 되니 적응하더라구요~”(2013.3.14.)

쌍둥이를 여건이 안 돼서 따로 키우는 경우 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쌍둥이에게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쌍둥이는 각자 전혀 다른 성격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은정, 2008)이다. 따라서 많은 쌍둥 직장맘들은 함께 키우기를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과후 활동 따로 시킬 건인가? 아니면 동시에 시킬 것인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육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교육 문제이다. 그런데 쌍둥 직장맘의 경우는 가정에서 전적으로 자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 외에도 같은 또래의 아이를 동시에 교육해야 한다는 점이다. 형제자매를 둔 대부분의 직장맘들은 시간의 차이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큰아이의 교육문제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둘째나 그다음 아이의 교육 문제는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쌍둥이의 경우는 시행착오를 거칠 겨를도 없이 동시에 교육문제를 결정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사 끝나고 애들 데려오면 6시 30분인데 7시쯤 영어 학습지 시키려고 상담 신청 했어요... 그런데 같이 하는지 따로 하는지 언뜻 물어보니 같이 하는 쪽으로 뉘앙스를 남기시더라구요.(중략) 아이들 성향이 좀 달라요..큰애는 한글을 거의 뺐거든요.. 학습에 관한건 둘째보다 좀 빨라서. 그래서 1:1로 시키고 싶은데...하다보면 진도도 다를 거 같고 ..어떻게들 하시나요?”(2013.7.18.)

“1:1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구요...”(2013.7.18.)

쌍둥이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 혼자 시킬 것인지 따로 시킬 것인지를 문제보다는 우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의 방법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쌍둥이 자녀의 교육, 잠, 학급배정 등의 결정에 있어 함께 할 것인지 따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자녀의 특성, 성격, 요구 및 부모의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될 문제이다(김양숙, 2005; 손영계, 허윤미, 정희옥, 2005; Ball, 2007).

2.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육아 관련 요구

1) 쌍둥이 출산시 출산휴가 연장

이 연구의 자료를 수집할 2013년 당시 게시글에 올라온 쌍둥이직장맘들의 요구의 대부분은 ‘쌍둥이 출산 시 다태아와는 달리 출산휴가 기간 연장, 기업의 임금 의무 지급 연장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쌍둥이 엄마들은 다 모여요’ 카페장과 회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함을 알렸고,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 끝날 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쌍둥이 낳으면 출산 휴가 연장 권고”를 발표하였고, 이 논문 작성이 완료되어가던 시점에 2014년 7월 1일부터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120일(단태아는 90일),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 배정(단태아 45일), 기업의 임금 의무 지급은 75일(단태아 60일), 고용센터에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모두 지원(최대 54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45일분(최대 202.5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으로 개정 공포되었다. 이 연구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기간 동안 쌍둥이직장맘들의 육아지원 요구가 제도화되는 일련의 변화가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에서 출산휴가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일부의 요구도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2014년에 게시글에 주로 요구되어 있어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과 맞지 않아 자료수집 당시 출산휴가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들이 분석되었다.

“자료상에도 보면 다태아의 조산율은 어마어마합니다. 다태아 출산할 때 40주 다 채우는 엄마가 누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들어갈까 조마조마. 거기다 막달 또는 마지막 2달은 침대생활만 해야 해서 출산휴가도 일찍 받고... 출산휴가 3개월이면 백일은 커녕 핏덩이를 놓고 나와야 하는 거 다 아시자나요”(2013.5.16.)

“쌍둥이 출산휴가 연장이 미숙아, 조산아일 확률이 높아서 이기도 하지만 임신기간동안 단태아보다 훨씬 고위험군이기도 하고, 출산 후 육아문제도 단태아보다는 훨씬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쌍둥이 출산휴가 연장의 이유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단태아와 다태아의 출산휴가 기준이 다르구요. 다태아지만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단태아 기준으로 출산휴가 주지는 않더라고요. 단태아의 미숙아 출산은 별도의 안건으로 발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쌍둥이 쪽으로 집중하는 게..”(2013.5.28.)

쌍둥이의 임신 기간 중 단태아보다 훨씬 고위험군 이라는 점, 출산 후 육아문제도 단태아보다는 훨씬 힘들다는 복합적인 이유만으로도 쌍둥이 출산 휴가 연장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쌍둥이 카페-직장맘들의 방에 올려진 글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위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쌍둥이 직장맘들이 느끼고 있는 고민 중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은 쌍둥이 카페의 정보 공유가 의외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쌍둥이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및 육아휴직 9세 연장

육아휴직제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하나로서 부모의 선택적 사항이나 자녀 육아를 위한 명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쌍둥이직장맘들은 육아휴직 시 경력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아들 셋 엄마입니다. 98년생 첫 째 2010년 동이들 제가 2010년 5월부터2011년 5월까지 둘째로 1년 휴직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 까지 셋째로 2년 휴직 연장하려고 이번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셋째는 다산정책의 일환으로 3년의 육아휴직 모두 경력인정을 해준다네요”(2013.3.26.)

“쌍둥이의 경우 총 6년까지 가능합니다. 경력인정은 한아이당 1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 째 아이로 3년을 휴직하면 3년 모두 경력 인정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쌍둥이가 첫째둘째의 아이로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각1명씩 1년의 경력인정이 되며 쌍둥이가 자녀서열의 세 째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 세 째의 육아휴직 3년은 모두 경력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2013.3.26.)

“타 국회의원은 육아휴직을 6세 자녀에서 9세 자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6세라도 공무원, 은행 아니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고, 차라리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구요”(2013.6.11.)

“쓰지 못 하더라도 제도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만...”(2013.6.12.)

육아 휴직 제도가 잘 시행되고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의 태도가 긍정적이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다(김영미, 2008). 여성의 근로 지속성은 육아휴직 제도 마련보다는 제도의 시행과 이에 대한 회사의 긍정적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 시행은 일단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제도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위 쌍둥 직장맘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쌍둥이 육아에 있어서는 남성의 역할이 커야 한다. 그러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남성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경영자들과 일반인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이남순, 2010), 인식전환과 함께 남성육아휴직제도의 마련과 현실적 수행이 요구된다.

또한 위의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9세까지로 연장하자는 요구가 있으나,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승진기대가 낮아지고 조직의 몰입과 조직 성과를 저하시키기 때문에(백선정, 2009).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을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념해서 생각해볼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맞벌이라 하더라도 쌍둥이 출산 시는 산모도우미 정부지원 받을 수 있기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산후조리원 2주쓰고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2주정도 하려했는데, 맞벌이라 산모도우미 지원을 못 받는대네요. 둘이 합치면 10만원이 족히 넘는데. 맞벌이한테는 너무 불리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맞벌이라고 다 넉넉하게 살만한 거 아니잖아요. 다자녀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현재 책정된 것보다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는 다자녀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도우미 지원을 해 주든지요”(2013.2.5.)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는 효과성과 고객만족도도 높으나(김인, 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도 핵가족화되고 있어 예전의 대가족제처럼 출산을 하면 가족단위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산후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로 보고 국가 개입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 이외에도 다테아 출산 시 배우자 휴가 연장, 다테아 산모에 업산-철분제 지원량 확대,

고운맘 카드,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단태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 확대. 미숙아 출산율이 높은 쌍둥이 미숙아 출산 예방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쌍둥이 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육아고민과 요구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 카페의 ‘쌍둥이 직장맘들의 방’에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게시된 글을 분석하여 그들만의 다양한 고민과 요구를 확인하였다. 쌍둥이 부모는 단태아 양육 부모보다 더 많은 양육 고민상황을 경험하며, 다른 연령 다자녀 양육 부모와는 또 다른 고민과 요구가 있었다. 특히 쌍둥이 자녀를 둔 직장맘들은 쌍둥이 육아, 직장, 가사를 양립하면서 더 많은 그리고 또 다른 문제상황에 대한 고민과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들의 고민과 요구는 단태아직장맘과 쌍둥이 자녀를 둔 비직장맘들의 고민과 어떻게 다를까? 본 연구에서는 이 다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육아 ‘고민’은 육아와 복직사이 그리고 퇴직 고민, 육아도우미 고민, 키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 복직, 퇴직, 육아도우미, 키움에 대한 고민은 쌍둥이 자녀를 두지 않고도 직장맘이라면 공통으로 하는 고민이라 볼 수 있으나, 본 연구 분석의 초점은 쌍둥이직장맘으로서의 고민이 어떻게 다른지에 있기 때문에 3개의 고민들이 쌍둥이직장맘이어서 경험하게 하는 고민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쌍둥이직장맘은 법적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할 것인지, 육아휴직 후 연장할 것인지 복직할 것인지를 일차적으로 고민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또 한 번 휴직과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민은 단태아직장맘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두 명의 자녀를 함께 봐줄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문제, 비용문제 등으로 단태아 직장맘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쌍둥이 직장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나 원숙연(2005)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현실을 조사한 연구에서 직장맘들이 육아휴직과 복직 사이에서 고민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의 조사연구에서 육아휴직을 길게 할수록 복직 후 적응, 직장유지가 어려웠다는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쌍둥이직장맘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출산 이후의 ‘육아’에 초점을 둔 현실적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가정양립정책을 입법화할 때 쌍둥이직장맘 지원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며, 한지영(2011)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평등적 입장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장맘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육아도우미 문제가 쌍둥이를 양육하는 직장맘에서는 어떤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지 분석할 결과, 도우미 한명을 또는 두 명을 쓸 것인가? 두 명을 쓴다면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인가, 이때 육아도우미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도우미 두 명을 쓸 때 갈등 등 문제가 없는가, 언제쯤 1명으로 줄여도 될 것인가, 2명의 쌍둥이를 봐 줄 육아도우미가 있는가, 1명의 육아도우미가 쌍둥이 돌봄이 정말 가능한가, 육아도우미의 적절한 업무량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도우미 없이 어린이집 양육만으로 가능한 가 등이 쌍둥이직장맘의 주요 고민들로 나타났다. 쌍둥이직장맘들은 육아를 지원하는 도우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적 측면에서 여러 고민이 있고 이것이 결국 육아 휴직 연장이나 퇴직을 하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도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지원이 달라 맞벌이를 하는 경우 대부분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일 뿐 아니라 연간 아이돌보미 이용시간도 정해져있어 직장 다니는 장시간동안 계속 돌보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쌍둥이직장맘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특히 영유아 때 애착상의 이유로 주양육자가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최정신(2011)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유무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남을 제시하고 있듯이 쌍둥이직장맘의 쌍둥이 육아의 현실적 지원을 위해서는 다태아의 경우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키움에 대한 고민에서는 쌍둥이를 따로 키워도 문제가 없는가, 어린이집을 다녀와서 하는 방과후 활동을 함께 또는 따로 시키는 것이 나은가, 둘이 한 반에 또는 다른 반에 넣을 것인가 등이 쌍둥이직장맘의 주요 고민들로 나타났다. 영아 자녀를 둔 쌍둥이직장맘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두 아이의 밤수유, 목욕, 수면 등을 담당하기 어려워 쌍둥이를 시택과 친정에 따로 키우는 경우가 흔치 않다. 입주도우미의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급배정이나 방과후 활동을 함께 하게 할 것인가 분리시킬 것인가는 쌍둥이 부모라면 키우는 과정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으로, 손영계, 허윤미, 정희옥(2005)와 Ball(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고민의 내용에 의해 지지받는다. 두 연구 모두 쌍둥이 자녀의 성격과 특성, 부모의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될 문제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양숙(2005)은 학급배정이나 여러 활동에 대해 함께 또는 따로 할 것인지를 아이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육아관련 '요구'는 쌍둥이 출산 시 출산휴가 연장, 쌍둥이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및 육아휴직 9세까지로 연장, 맞벌이라 하더라도 쌍둥이 출산 시 산모도우미 정부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2014)의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여성지원제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다태아 출산전후휴가가 단태아보다 30일 확대되었으나 다태아 출산 시 육아휴직 관련 제도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그러나 이

미 홍정화(2012)나 김정호(2012)에서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향후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다태아 직장맘의 요구를 고려하여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지란(2011)의 연구에서 산후도우미 돌봄 서비스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보고를 토대로 볼 때 현재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 확대하여 더 많은 산모들이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모든 산모들에게 2주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쌍둥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맘들의 고민과 요구를 알아보았으나, 영아와 유아 자녀인지에 따라 고민의 양상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쌍둥이직장맘의 영아자녀인지 유아자녀인지를 구분하여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양육기술, 양육방법, 육아 힘들음을 받아들이는 정도 등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그리고 현재 자녀의 연령, 기질과 성격 등도 육아의 힘들 정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시판의 고민들을 토대로 분석하였기에 이를 모두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쌍둥이 관련 연구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쌍둥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의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수행되었으나 더 확대되어 쌍둥이 발달, 양육과정에 초점을 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인해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기업의 마케팅 통로로 활용되거나, 거대 담론을 형성하여 사회에 법적 요구를 하는 정치세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사례(이은경, 2006)에서 알 수 있듯이 쌍둥이 육아는 단태아 육아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쌍둥이 육아서도 없을 뿐 아니라 쌍둥이의 발달과정,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 서로의 의미 규명, 쌍둥이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 등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쌍둥이맘들은 함께 모여 수다를 떨 여유도 없다. 그러나 쌍둥이직장맘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이 본 연구의 자료수집 원천이었던 '쌍둥이맘 모여라'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그들의 요구가 거대 담론을 형성하여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데까지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이 늘고 있고, 여성고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통계청홈페이지, 2014). 따라서 쌍둥이 자녀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경험하게 되는 양육의 어려움과 고민을 토대로 질적인 쌍둥이 양육서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4).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여성지원제도 보도자료.
- 고은영 (2010). 쌍둥이 영아의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관련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숙 (2005). **쌍둥이 임신에서 육아까지**. 이미지박스.
- 김영미 (2008). 육아휴직과 회사의 태도가 근로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인 (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 요인: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4), 127-151.
- 김자현 (2007). 쌍둥이 설화 연구. **남도민속연구**, 14, 123-145.
- 김정호 (2012).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개발연구**, 34(1), 169-197.
- 남지란 (2011). 산후도우미 돌봄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집**, 21(2), 137-164.
- 백선정 (2009). 육아휴직이 여성공무원의 승진기대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영계, 허윤미, 정희욱 (2005). 쌍둥이 아동의 학급배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2), 243-259.
- 양점열 (2002). 쌍둥이의 꿈. **아동문학평론**, 27(1), 45-49.
- 원숙연 (2005).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와 현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2), 157-189.
- 이남순 (2010). 남성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민 (2007). 초등학교 여교사의 임신, 출산 및 육아문제에 관한 연구: 온라인 초등학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분석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숙 외 (2005). **실행연구방법**. 학지사.
- 이은경 (2006). 행복 두 배, 쌍둥이 육아일기. **월간샘터**, 433,
- 이은정 (2008). 기질이 다른 두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방식의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영 (2002). 불문학: 희곡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쌍둥이 이야기의 여러 가지 변용. **불어불문학연구**, 50, 439-472.
- 최정신 (2011).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205-223.
- 통계청 (2010, 2012). 국내출산동향자료. 통계청홈페이지 2013.2.7. 인출

- 통계청 (2014). 국내여성동향자료. 통계청홈페이지 2014.5.20. 인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2001-2012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체감정책단 블로그 2014.3.10. 인출.
- 한지영 (2011). 일. 가정양립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이화젠더법학**, 2(1), 57-87.
- 홍정화 (2012).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법과 정책연구**, 12(3), 1141-1175.
- Ball, H. L. (2007). Together or apart? A behavioural and physiological investigation of sleeping arrangements for twin babies. *Midwifery*, 23, 404-412.

ABSTRACT

The demands and worries of rearing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win

Suh, Hye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mands and worries of rearing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win. The quest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at are worries of working mothers who rear young children twin? second, what are demands of working mothers who rear young children twin?

The qualitative research was used in this study. To attain this goal, this study analyzed postings on bulletin board of online community related to twin mam. Collected material was interpreted and some types were extracted by their conceptual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win had worries of rearing such as reinstatement, baby break, retirement from office, child-care helper's service. Second,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win had demands of rearing such as the extension of maternity leave, to guarantee their career during paternity leave, the extension of paternity leav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rew some implications in making policy and system which can support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wi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 frame of reference for supporting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win. This study suggested that policy and system for reducing trials and errors in rearing twin must be set up.

Key words : twins, working mom, rear, young children, online community

초등돌봄강사의 근무 현황과 요구분석*

서 영 숙** 박 진 옥*** 노 성 향****

〈요 약〉

본 연구는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분석과 410명의 초등돌봄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초등돌봄강사의 자격과 근무 실태, 요구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강사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돌봄강사의 임용은 임용과 관련된 절차를 확립하여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화를 통해,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주 40시간 근무를 권장하고, 초등돌봄교실 전담 교사제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 교사지위 향상을 위해서 명칭변경, 학교구성원으로 인정, 학교 내 소속 변경 등이 필요하다. 넷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초등돌봄 교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초등돌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통일된 급여체계 마련, 휴직허용범위 확대, 경력인정,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돌봄교실 운영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조교사 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 현실화해야 한다.

주제어 : 초등돌봄교실, 교사의 근무환경

· 논문접수: 2014. 4. 28 / 수정본접수: 2014. 6. 28 / 게재승인: 2014. 7. 30

* 본 논문은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과제로 수행된 “돌봄강사의 자격 표준화 및 신분보장 방안 연구”의 일부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주저자

*** 동원대학교 복지학부 아동보육복지전공 교수

****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magarita@daegu.ac.kr)

I.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방과후 아동지도는 1980년대부터 빈민지역,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설립 운영되던 ‘공부방’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보육 공공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녀양육지원의 요구증가로 더욱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은 방과후 시간에 성인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학령기 아동의 보호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이후 점차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여성노동력의 활용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의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비싼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초등학교에서의 돌봄기능이 점차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의 전면 확대로 학생들의 토요일 휴업일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2014년 3월 통계에 따르면 전국 5,910개의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222,866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대해 맞벌이 부부, 저소득·한부모 등 토요일에도 아동돌봄이 필요한 상당수 부모들을 위한 대책이 매우 미비하다는 우려가 높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는 각 초등학교의 토요일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도 높다. 실제 2010년 방과후학교 성과 분석(김홍원 외, 2010)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았고, 사교육비 경감효과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이 참여 비용이 저렴하고 학교숙제나 공부를 지도해주고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참여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강사*의 자격 표준화 및 신분보장이 확보되지 않아 돌봄교실 운영의 안정성 및 우수한 돌봄강사를 통한 돌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1년 8월에 있었던 초등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돌봄강사, 교장, 대학교수, 교과부 관계자, 학부모들이 주장한 내용 중 하나는 돌봄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강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시도별,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2014년 현재 초등돌봄교실 담당자의 호칭은 초등돌봄전담사이지만 본 연구 당시 호칭은 초등돌봄강사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강사로 통일함.

초등돌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강사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아동의 양육과 지도를 담당하는 돌봄강사의 역할과 자질은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보호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담당자의 질적 수준이 교육의 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비례하여 초등학생도 돌봄교실 선생님과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갖는 것이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수한 돌봄강사를 유인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려면 돌봄교사의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경숙(2011)은 초등돌봄강사의 고용 불안정과 경력불인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였고 초등돌봄교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정규직화, 승급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서영숙, 박진옥, 서혜전(2009)과 서영숙(2011)도 초등방과후 전달체계 개선과 근거 법 제정,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 및 연수제도 마련, 근무여건 개선이 초등돌봄강사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강사 자격 표준화와 신분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돌봄업무에 관련된 주체, 즉 초등돌봄교실에서 직접 초등학생의 방과전후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돌봄강사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강사에게 적절한 처우와 근무조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초등돌봄교실의 돌봄강사의 자격 표준화와 신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돌봄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강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시도별,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돌봄강사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초등돌봄강사의 자격기준과 신분보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돌봄강사의 질과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초등돌봄교실의 아동들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보호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고, 초등돌봄교실 수요 확대에 따른 돌봄강사의 질 제고와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강사를 대상으로 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장단기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돌봄강사의 근무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현황과 자격, 처우, 근무환경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1월 현재 초등돌봄교실에 종사하고 있는 초등돌봄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지역별 안배를 통해 다단계층화표본 추출방법으로 표집하였고, 설문지의 배포와 수합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진행되어, 최종 수거된 설문지는 430부였고 회수된 자료는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한 후 410개의 설문지를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초등돌봄강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 사 례 수 | 비 율 |
|-------------------------|-------------------|-------|
| 연 령 | 20대 | 3.7 |
| | 30대 | 22.7 |
| | 40대 | 59.3 |
| | 50대 이상 | 13.4 |
| | 무응답 | 1.0 |
| | 계 | 410 |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 3.7 |
| | 2, 3년제 대학 수료 및 졸업 | 31.7 |
| | 4년제 대학 수료 및 졸업 | 50.2 |
| | 대학원 수료 및 졸업 | 13.4 |
| | 무응답 | 1.0 |
| | 계 | 410 |
| 초등돌봄강사 경력 (전체 경력) | 1년 미만 | 9.8 |
| | 1년~2년 미만 | 22.4 |
| | 2년~3년 미만 | 22.0 |
| | 3년~5년 미만 | 25.6 |
| | 5년 이상 | 18.3 |
| | 무응답 | 2.0 |
| 계 | 410 | 100.0 |

조사에 응답한 초등돌봄강사의 연령대는 '40대'(59.3%)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22.7%), '50대 이상'(13.4%)의 순이었다. '20대'(3.7%)는 매우 적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72.7%가 40대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연령대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수료 및 졸업'(50.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 3년제 대학 수료 및 졸업'(31.7%)이었고 13.4%정도는 대학원을 수료하거나 졸업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돌봄강사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전체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3년~5년 미만'(25.6%)이 가장 많았고 '1년~2년 미만'(22.4%)과 '2년~3년 미만'(22.0%)의 순이었다. '5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18.3%나 되었다. 응답자의 65.9%가 초등돌봄강사로 일한 경력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 하였다.

2. 연구도구

설문지는 노성향(2007)의 연구와 우삼제(2011)의 연구 등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여건, 돌봄강사의 신분보장에 대한 의견, 돌봄교실의 운영상 어려운 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내용은 <표 2>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 2>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현황 및 요구조사 문항

| 구 분 | 조사내용 |
|----------------------|---|
| 초등돌봄강사의 일반적 현황, 근무여건 | 연령, 교육수준, 경력, 자격, 경력, 근무시간, 재직기간, 급여, 계약상태, 자원봉사자 활용현황, 행정업무시 소통하는 학교담당자 |
| 초등돌봄강사 신분안정화에 대한 의견 |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명칭,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자격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학력수준,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급여 초등돌봄강사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처우, 초등돌봄강사 1인당 적정 아동수, 초등돌봄강사의 학교내 위치 초등돌봄강사의 신분안정화에 대한 필요성 |

Ⅲ. 연구결과

1.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현황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자격, 경력, 근무시간, 급여, 계약상태, 자원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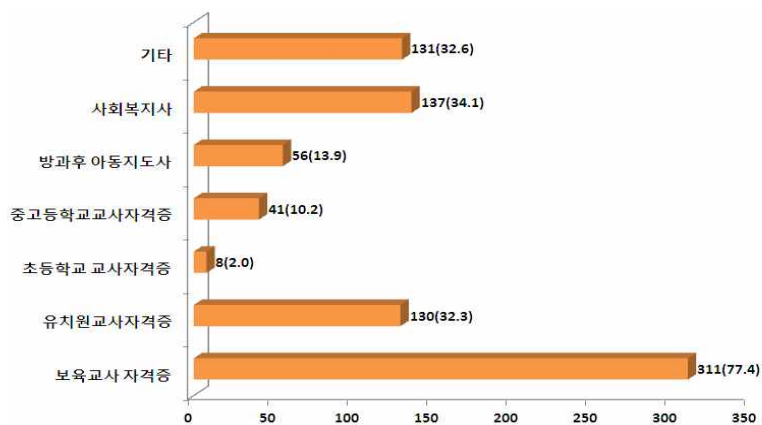
사자 및 보조교사 활용, 행정업무시 의사소통하는 학교담당자를 조사하였다.

1) 초등돌봄강사의 자격증 보유현황

초등돌봄강사가 보유한 자격증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자격증'(77.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복지사'(34.1%), '기타'(32.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유치원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32.3%로 비교적 많았으나, '초등학교 교사자격증'(2.0%)을 보유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 이외에도 '방과후아동지도사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13.9%, '중고등학교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10.2%나 되었다.

이를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시간대에 따라 살펴보면, '아침만 근무'하는 강사는 '방과후아동지도사'(50.0%)와 '기타'(10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만 근무'하는 강사들은 대부분 '보육교사자격증'(78.7%)을 가지고 있고, '유치원교사자격증'(33.5%)과 '사회복지사'(33.5%)를 가진 경우도 비교적 많았다. '저녁만 근무'하는 강사들은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강사들에 비해 '보육교사자격증'(60.7%)의 보유율은 낮았지만 '중고등학교교사사자격증'(14.3%)과 '기타'(46.4%)자격증의 보유율은 비교적 높았다. '아침, 오후 근무' 강사들은 '보육교사자격증'(75.0%)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아침, 저녁 근무' 강사들은 모두 '보육교사자격증'(100%)을 가지고 있었다. '오후~저녁근무' 강사들도 대부분 '보육교사자격증'(83.3%)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강사들에 비해 '사회복지사'(41.7%)자격증 보유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아침~저녁' 근무강사들은 아침만 근무하는 강사를 제외한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강사들에 비해 '보육교사자격증'(66.7%)의 보유율이 낮지만, '유치원교사자격증'(50.0%)의 보유율은 높았다.

N = 403 단위: 명(%)



(그림 1) 초등돌봄강사의 자격증 보유현황(다중응답)

〈표 3〉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시간대에 따른 자격증 보유현황(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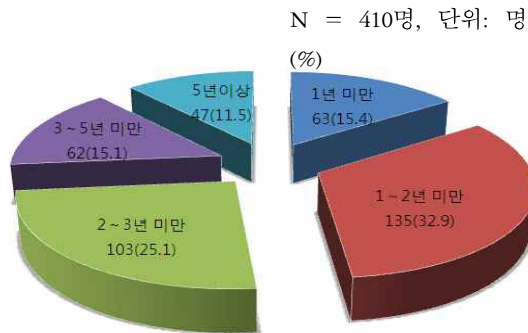
단위: 명(%)

| 자격증 종류 | | 근무시간대 | | | | | | | 전체 n=406 |
|--------------------|----|------------------|--------------------|-------------------|---------------------|---------------------|---------------------|--------------------|---------------|
| | | 아침만 근무 n=2 | 오후만 근무 n=319 | 저녁만 근무 n=28 | 아침, 오후 근무 n=8 | 아침, 저녁 근무 n=3 | 오후~저녁 근무 n=36 | 아침~저녁 근무 n=6 | |
| 보육교사 자격증 | 있음 | 0 (0.0) | 251 (78.7) | 17 (60.7) | 6(75.0) | 3 (100.0) | 30 (83.3) | 4(66.7) | 311 (77.4) |
| | 없음 | 2 (100.0) | 68 (21.3) | 11 (39.3) | 2(25.0) | 0(0.0) | 6(16.7) | 2(33.3) | 91 (22.6) |
| 유치원교사 자격증 | 있음 | 0(0.0) | 107 (33.5) | 7 (25.0) | 2(25.0) | 1(33.3) | 10 (27.8) | 3(50.0) | 130 (32.3) |
| | 없음 | 2 (100.0) | 212 (66.5) | 21 (75.0) | 6(75.0) | 2(66.7) | 26 (72.2) | 3(50.0) | 272 (67.7) |
|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 있음 | 0(0.0) | 8(2.5) | 0(0.0) | 0(0.0) | 0(0.0) | 0(0.0) | 0(0.0) | 8(2.0) |
| | 없음 | 2 (100.0) | 311 (97.5) | 28 (100.0) | 8 (100.0) | 3 (100.0) | 36 (100.0) | 6 (100.0) | 394 (98.0) |
|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 있음 | 0(0.0) | 30(9.4) | 4 (14.3) | 1(12.5) | 0(0.0) | 6(16.7) | 0(0.0) | 41 (10.2) |
| | 없음 | 2 (100.0) | 289 (90.6) | 24 (85.7) | 7(87.5) | 3 (100.0) | 30 (83.3) | 6 (100.0) | 361 (89.8) |
| 방과후아동 지도사 | 있음 | 1(50.0) | 46 (14.4) | 3 (10.7) | 0(0.0) | 0(0.0) | 6(18.9) | 0(0.0) | 56 (13.9) |
| | 없음 | 1(50.0) | 273 (85.6) | 25 (89.3) | 8 (100.0) | 3 (100.0) | 30 (81.1) | 6 (100.0) | 346 (86.1) |
| 사회 복지사 | 있음 | 0(0.0) | 107 (33.5) | 10 (35.7) | 3(37.5) | 1(33.3) | 15 (41.7) | 1(16.7) | 137 (34.1) |
| | 없음 | 2 (100.0) | 212 (66.5) | 18 (64.3) | 5(62.5) | 2(66.7) | 21 (58.3) | 5(83.3) | 265 (65.9) |

2) 초등돌봄강사의 경력 및 근무시간

(1) 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재직기간

초등돌봄강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재직 한 경력은 평균 36.4개월이었고, 이를 재직기간별로 살펴보면, '1~2년 미만'(32.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3년 미만'(25.1%)이 많았다. '5년 이상'의 장기 재직자도 11.5%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조사 응답자의 전체 경력을 고려하여 해석해 보면 초등돌봄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초등돌봄교실 재직기간

(2) 학기 중 근무시간

초등돌봄강사들의 학기 중 근무시간은 '5~7시간미만'(50.8%)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7~9시간미만'(24.6%), '5시간미만'(15.2%)의 순이었다. 이를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시간대에 따라 살펴보면, '아침만 근무'하는 강사들은 학기 중에 하루 평균 4시간30분을 근무하며, '오후만 근무'하는 강사들은 학기 중에 하루 평균 5시간47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만 근무'하는 강사들은 학기 중에 하루 평균 6시간5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침, 오후 근무'하는 강사들은 학기 중에 평균 5시간3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저녁 근무'강사들은 하루 평균 5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들 중 48.6%는 '9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침~저녁근무' 강사들은 학기 중에 하루 평균 7시간50분을 근무하였다. 이들은 주로 '9시간 이상'(66.7%)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시간대에 따른 학기 중 근무시간 단위: 시, 분, 명(%)

| 구분 | 근무시간대 | | | | | | | |
|-----------|---------------|-----------------|----------------|------------------|------------------|-----------------|-------------|-----------|
| | 아침만 근무 n=2 | 오후만 근무 n=289 | 저녁만 근무 n=27 | 아침, 오후 근무 n=6 | 오후~저녁 근무 n=35 | 아침~저녁 근무 n=3 | 전체 n=362 | |
| M(SD) | 4:30(3:32) | 5:47(1:21) | 6:50(1:51) | 5:30(3:08) | 5:00(0:48) | 7:50(1:33) | | |
| 근무 시간량 | 5시간미만 | 1(50.0) | 44(15.2) | 6(22.2) | 1(16.7) | 3(8.6) | 0(0.0) | 55(15.2) |
| | 5~7시간미만 | 0(0.0) | 175(60.6) | 4(14.8) | 3(50.0) | 2(5.7) | 0(0.0) | 184(50.8) |
| | 7~9시간미만 | 1(50.0) | 64(22.1) | 9(33.3) | 1(16.7) | 13(37.1) | 1(33.3) | 89(24.6) |
| | 9시간이상 | 0(0.0) | 6(2.1) | 8(29.6) | 1(16.7) | 17(48.6) | 2(66.7) | 34(9.4) |

(3) 방학 중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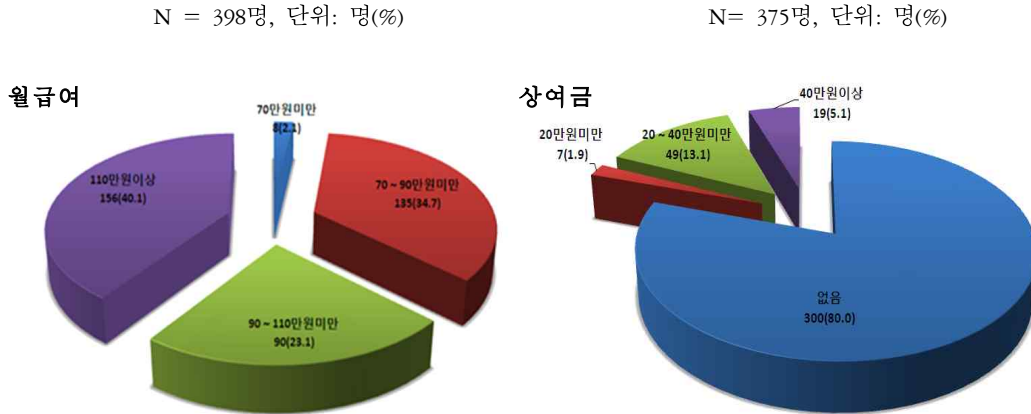
초등돌봄강사들은 방학 중에 하루 평균 6시간 14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시간을 살펴 본 결과, '7~9시간미만'(39.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7시간미만'(33.1%)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시간대에 따라 살펴보면, '아침만 근무' 강사들은 방학 중에 하루 평균 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후만 근무' 강사들은 방학 중에 하루 평균 5시간57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만 근무' 강사들은 방학 중 하루 평균 6시간2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침~저녁 근무' 강사들은 방학 중에 하루 평균 11시간 2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저녁 근무' 강사들은 방학 중 하루 평균 8시간15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하는 시간은 '7~9시간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나 응답자의 47.2%이고 9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도 44.4%로 많았다.

〈표 5〉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시간대에 따른 방학 중 근무시간 단위 : 시간, 명(%)

| 구분 | 근무시간대 | | | | | | | |
|-----------|------------------|--------------------|-------------------|---------------------|---------------------|--------------------|-------------|------------|
| | 아침만 근무 n=2 | 오후만 근무 n=291 | 저녁만 근무 n=28 | 아침, 오후 근무 n=6 | 오후~저녁 근무 n=36 | 아침~저녁 근무 n=3 | 전체 n=366 | |
| | M(SD) | 4:00(2:49) | 5:57(1:49) | 6:19(2:55) | 6:20(3:53) | 8:15(1:28) | 11:20(3:03) | 6:14(2:06) |
| 근무 시간량 | 5시간미만 | 1(50.0) | 60(20.6) | 7(25.0) | 2(33.3) | 2(5.6) | 0(0) | 72(19.7) |
| | 5~7시간미만 | 1(50.0) | 116(39.9) | 3(10.7) | 0(0) | 1(2.8) | 0(0) | 121(33.1) |
| | 7~9시간미만 | 0(0) | 109(37.5) | 15(53.6) | 1(16.7) | 17(47.2) | 1(33.3) | 143(39.1) |
| | 9시간이상 | 0(0) | 6(2.1) | 3(10.7) | 3(50.0) | 16(44.4) | 2(66.7) | 30(8.2) |

3) 월 급여와 상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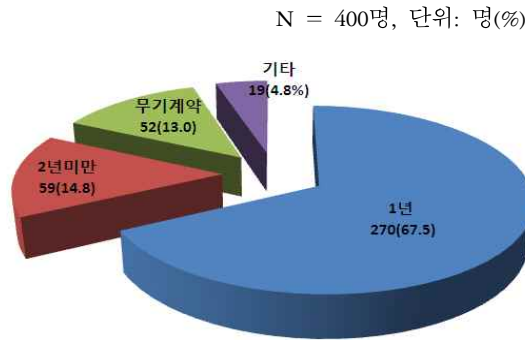
초등돌봄강사의 월 급여 평균은 조사 대상 응답자의 40.1%가 11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70~90만원은 34.7%로 나타났고, 90~110만원은 23.1%순이었다. 돌봄강사의 근무시간대에 따른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교사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다. 초등돌봄강사의 상여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본 결과, 상여금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40만원 미만이 13.1%, 40만원 이상은 5.1%, 20만원 미만이 1.9%로 나타났다. 돌봄강사의 근무시간대에 따라 상여금을 살펴보면, 오후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상여금을 받고 있었다.



(그림 3) 초등돌봄강사의 월급여 및 상여금

4) 계약상태

초등돌봄강사의 계약상태는 1년 계약이 6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년 미만 (14.8%), 무기계약(13.0%)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대에 따른 계약형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오후근무’와 ‘오후~저녁 근무’의 경우 무기계약직은 각각 12.3%, 19.4%수준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7.6%와 61.1%가 1년 계약직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초등돌봄강사의 계약상태

5)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 활용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시설은 18.6%뿐이었고, 대부분(81.4%)의 시설은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 활용을 초등돌봄교실의 운영형태별로 살펴보면, ‘아침,오후 운영’(66.7%)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오후~저녁 운영’(31.4%) 순이었다.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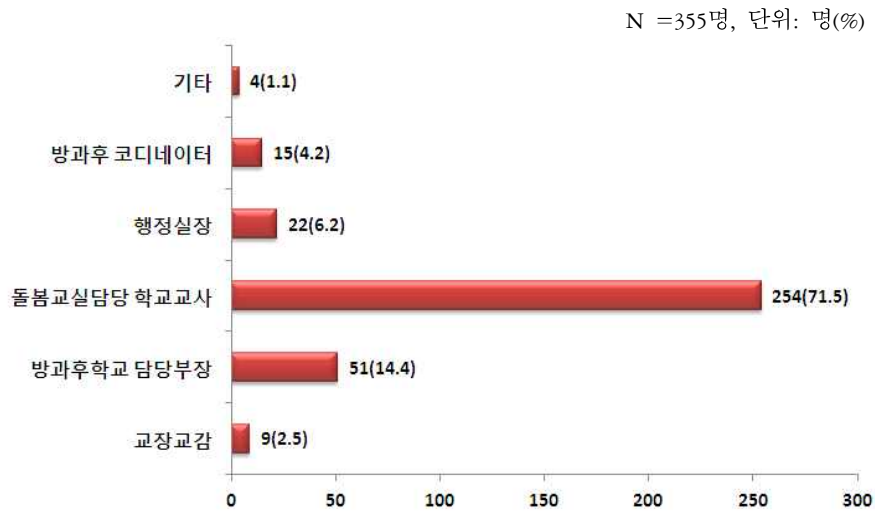
‘아침만 운영’과 ‘아침~저녁운영(종일운영)’은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초등돌봄교실 운영형태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 활용 단위: 개소(%)

| 활용여부 | 초등돌봄교실 운영형태 | | | | | | | 전체 n=376 |
|---------|------------------|--------------------|-------------------|---------------------|---------------------|---------------------|------------------------------|-------------|
| | 아침만 운영 n=2 | 오후만 운영 n=300 | 저녁만 운영 n=25 | 아침, 오후 운영 n=6 | 아침, 저녁 운영 n=3 | 오후~저녁 운영 n=35 | 아침~저녁 운영 (종일운영) n=5 | |
| 활용함 | 0(0) | 50(16.7) | 5(20.0) | 4(66.7) | 0(0) | 11(31.4) | 0(0) | 70(18.6) |
| 활용하지 않음 | 2(100.0) | 250(83.3) | 20(80.0) | 2(33.3) | 3(100.0) | 24(68.6) | 5(100.0) | 306(81.4) |

6) 행정업무 처리 시 주로 의사소통을 하는 학교 담당자

초등돌봄강사들은 행정업무를 처리 할 때 의사소통을 하는 학교 담당자는 ‘초등돌봄교실 담당 학교교사(71.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방과후학교 담당부장(14.4%)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교장교감(2.5%), ‘행정실장(6.2%), ‘방과후코디네이터(4.2%)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행정업무 처리 시 주로 의사소통을 하는 학교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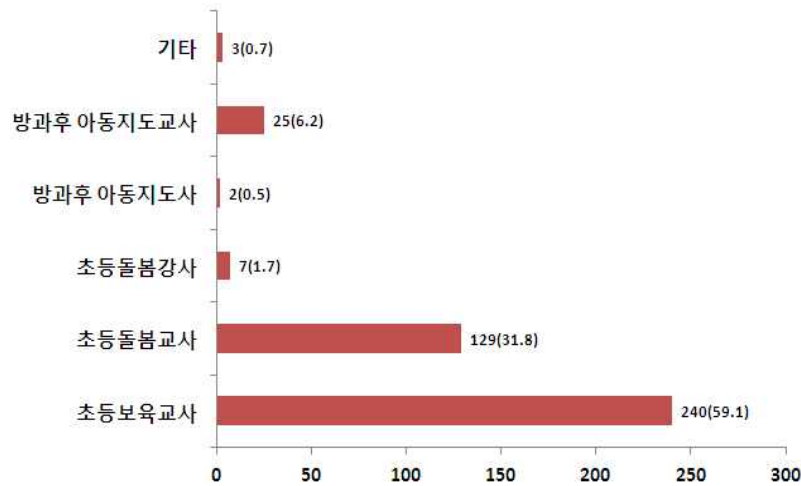
2.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의견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명칭,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자격,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학력수준,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급여, 초등돌봄강사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처우, 초등돌봄강사 1인당 적정 아동수, 초등돌봄강사의 학교내 위치, 초등돌봄강사의 신분안정화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명칭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명칭에 대해서는 ‘초등보육교사’(59.1%)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초등돌봄교사’(31.8%)순이었다. ‘방과후 아동지도교사’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6.2%정도로 나타났으나 현재 초등돌봄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등돌봄강사’(1.7%)를 적절한 명칭이라도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적게 나타나 초등돌봄강사를 위한 명칭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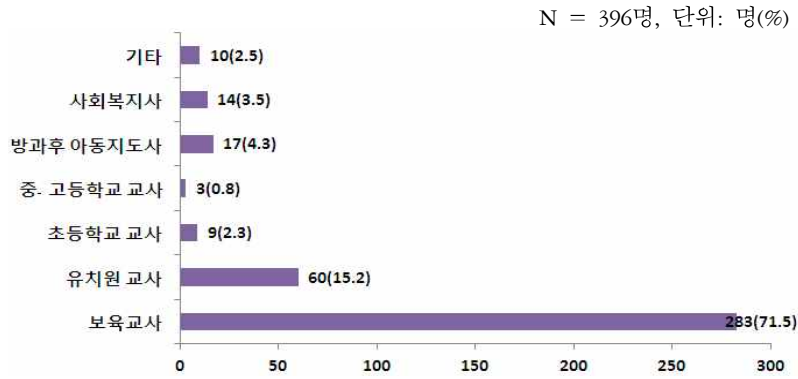
N = 406명, 단위: 명(%)



(그림 6)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명칭

2)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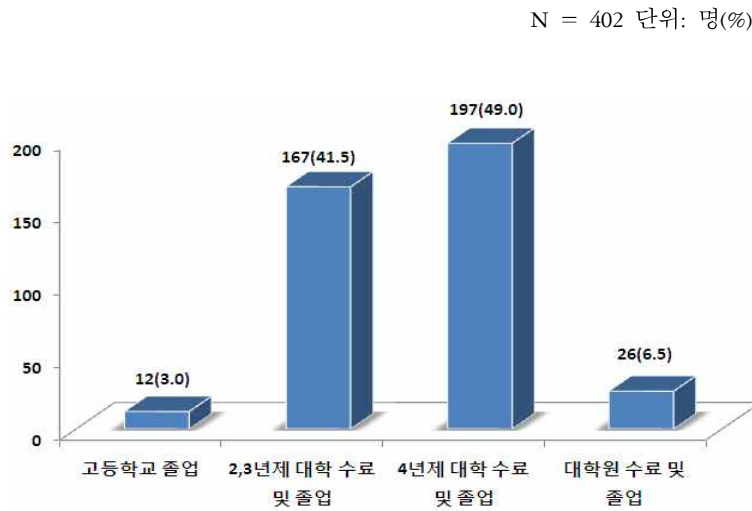
대다수의 응답자가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자격으로 ‘보육교사’(71.5%)를 응답하였고, ‘유치원교사’(15.2%)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비교적 많았다. ‘초등학교교사’(2.3%)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적었다.



(그림 7) 초등돌봄강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3)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교육수준

초등돌봄강사에게 적절한 교육수준을 묻는 질문에 많은 강사들이 '4년제 대학 수료 및 졸업'(49.0%)과 '2,3년제 대학 수료 및 졸업'(41.5%)라고 응답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3.0%)은 매우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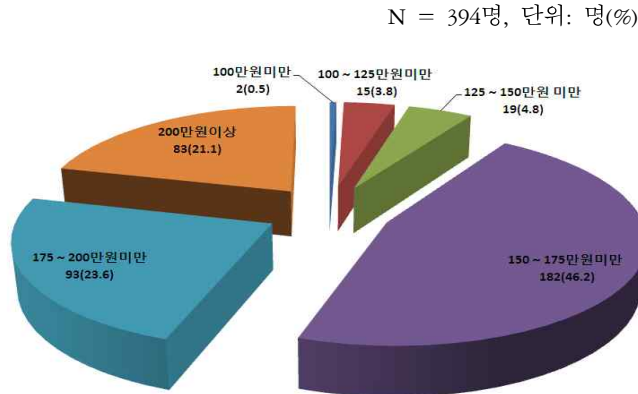


(그림 8) 초등돌봄강사의 적정 교육수준

4) 희망 급여 및 상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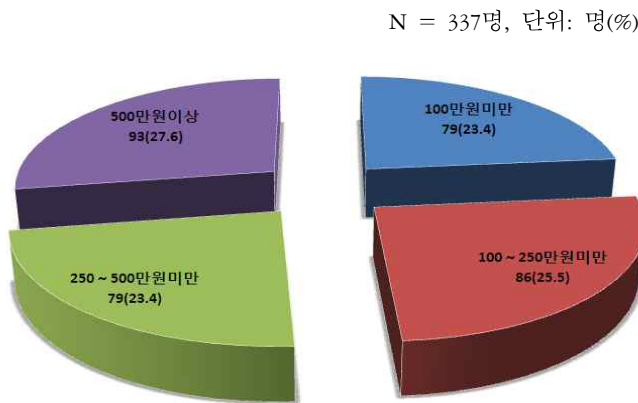
초등돌봄강사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평균 169만원 정도의 급여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46.2%가 150~175만원미만의 급여를 희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175~200만원 미만(23.6%), 200만원이상 (21.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돌봄강사의 실제

급여를 조사한 결과, 110만원 이상 40.1%, 70~90만원 34.7%, 90~110만원 23.1%인 것에 비교해 차이가 있다.



(그림 9) 초등돌봄강사가 생각하는 적절한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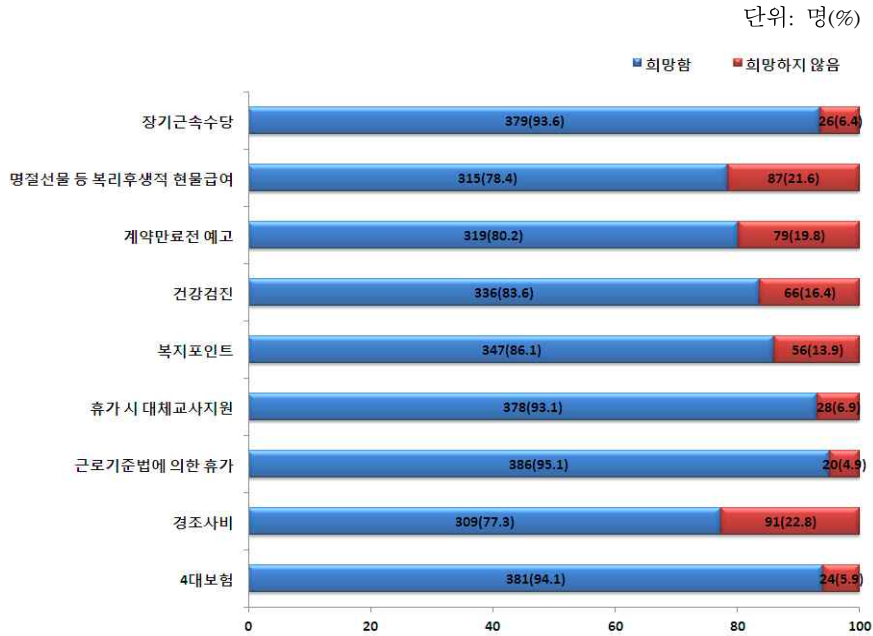
다음으로 초등돌봄강사들이 희망하는 상여금은, 응답자의 27.6%가 500만원 이상의 상여금을 희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100~250만원(25.5%), 100만원 미만(23.4%), 200~500만원 미만(23.4%)순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0) 초등돌봄강사가 희망하는 상여금

5) 희망 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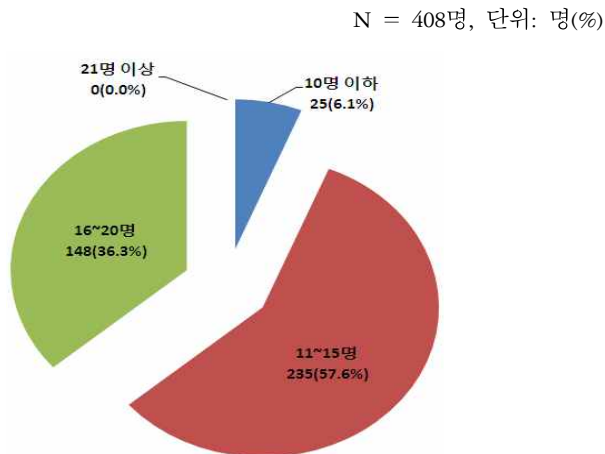
초등돌봄강사가 희망하는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가 95.1%로 가장 많았고, 4대 보험(94.1%), 장기근속수당(93.6%). 휴가 시 대체 교사지원(93.1%), 복지포인트(86.1%), 건강검진(8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초등돌봄강사가 희망하는 처우(다중응답)

6) 초등돌봄강사 1인당 적정 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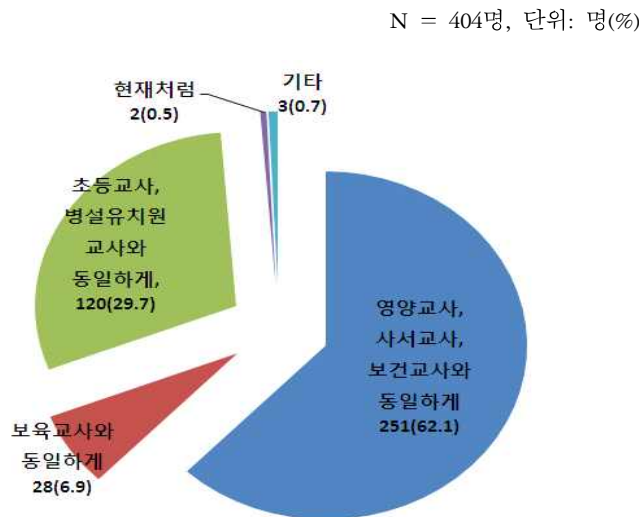
초등돌봄강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돌봄강사 대 아동의 수는 강사 1인당 '11~15명' (57.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6~20명'(36.3%), '10명이하'(6.1%) 순이었다. 반면, '21명이상'은 0%의 응답자가 응답하였다.



(그림 12) 초등돌봄강사 1인당 적정 아동 수

7) 학교 내 초등돌봄강사의 적정 위치에 대한 인식

초등돌봄강사에게 학교내에서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와 동일하게’(62.1%)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초등교사, 병설유치원교사와 동등하게’(29.7%), ‘보육교사와 동일하게’(6.9%)순으로 응답하였으나 ‘현재처럼’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0.5%로 매우 적었다. 이는 앞서 초등돌봄강사를 부르는 가장 적절한 명칭에 대한 질문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초등보육교사’(59.1%)와 ‘초등돌봄교사’(31.8%)를 선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즉, 대부분의 초등돌봄강사들이 현재의 명칭과 학교 내 위치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초등돌봄강사가 교직의 한 직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3) 초등돌봄강사의 학교 내 초등돌봄강사의 적정 위치

8) 초등돌봄강사의 신분안정화에 대한 필요성

초등돌봄강사의 신분안정화를 위해 각각의 문항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알아 본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강사의 고용 및 신분보장법제화’(3.98), ‘강사의 근무환경 개선 향상’(3.97), ‘강사의 재교육을 위한 대체인력 및 비용지원’(3.89), ‘강사의 자격기 준강화’(3.69) 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느끼고 있었다.

〈표 7〉 초등돌봄강사의 신분안정화에 대한 필요성

N = 408명

| | 신분안정화를 위한 항목 | | | |
|-------|--------------|-------------------------|-----------------|-------------------|
| | 강사의 자격기준 강화 | 강사의 재교육을 위한 대체인력 및 비용지원 | 강사의 근무환경(급여) 향상 | 강사의 고용 및 신분보장 법제화 |
| M(SD) | 3.69(.52) | 3.89(.31) | 3.97(.20) | 3.98(.13)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여, 초등돌봄강사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여건을 파악하고,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돌봄강사의 근무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응답자의 65.9%가 초등돌봄강사로 일한 경력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하고 있지만, 현재의 근무지에서는 '1~2년 미만'(32.9%)근무가 가장 많았다.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시설은 18.6%뿐이었고, 행정업무를 처리 할 때 의사소통을 하는 학교 담당자는 '초등돌봄교실담당 학교교사'(71.5%)가 가장 많았다. 초등돌봄강사의 월급여는 응답자의 40.1%가 110만원 이상, 70~90만원은 34.7%, 90~110만원은 23.1%순이었으며, 상여금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0.0%로 가장 많았다. 계약상태는 1년 계약이 67.5%로 가장 많았다. 초등돌봄강사에게 제공되는 처우 중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것은 4대보험(92.4%)이었다.

둘째, 초등돌봄강사의 신분안정화와 관련된 조사 결과는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명칭은 '초등보육교사'(59.1%)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자격은 '보육교사'(71.5%)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교육수준은 응답자 대부분이 '4년제 대학 수료 및 졸업'(49.0%)과 '2, 3년제 대학 수료 및 졸업'(41.5%)라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급여는 평균 169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희망하는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가 95.1%로 가장 많았고, 4대보험(94.1%), 장기근속수(93.6%), 휴가시 대체 교사지원(93.1%), 건강검진(48.3%), 복지포인트(86.1%), 건강검진(83.6%)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강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는 초등돌봄강사 1인당 '11~15명'(57.6%)이 가장 많았고, 가장 효율적인 초등돌봄교실의 운영형태는 '오후~저녁 운영'(49.3%)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돌봄강사의 신분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강사의 고용 및 신분보장법제화'(3.98)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강사의 신분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교사임용절

차 확립,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구), 교사처우에 대한 지침과 운영에 대한 법적기반 확립, 교사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초등돌봄강사의 임용은 임용과 관련된 절차를 확립하여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공립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을 통한 시험검정 임용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공개 전형의 원칙하에 자체 공개 모집과 선발 전형에 의해 임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초등돌봄강사는 소정의 자격취득과정을 거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임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때 병설유치원 교사 임용시 기존 강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과 같이 초등돌봄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력 뿐 아니라 2년제 졸업자는 6호봉, 3년제는 7호봉, 4년제는 8호봉, 사범대 졸업자는 9호봉에서 시작되는 것과 같이 학력에 따라 호봉에 차이를 두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둘째,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화를 통해, 초등돌봄강사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주 40시간 근무를 권장하고, 초등돌봄교실 전담 교사제를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를 포함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돌봄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2014년 교육부가 발표한 무상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중 희망자는 누구나 오후 5시까지(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는 밤 10시까지) 무상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약 3만61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오후돌봄교실 1학년, 2학년 희망자는 2만5665명에 이른다. 이처럼 희망자가 늘어났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돌봄교실 교사들의 처우는 그대로다. 일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초등학교 돌봄교사 및 보조인력 모집공고를 보면 시급 6530원, 5850원 가량으로 저임금이 태반이다. 교사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학생 수에 따라 유동적 인력 조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계약자는 예외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하루 2시간 정도의 단기근무자를 시간제 급여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등돌봄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신분안정화를 위해 돌봄강사의 고용 및 신분보장을 법제화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초등돌봄교실이 보호와 생활지도, 상담,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초등돌봄강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는 초등돌봄강사의 자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고려해야 될 점과 필요한 사항들을 위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지위 향상을 위해서 명칭변경, 학교구성원으로 인정, 학교 내 소속 변경 등이 필요하다. 초등돌봄교실의 선생님은 특기·적성 '강사'와 동일하게 초등돌봄 '강사'로 호칭되었다가 2014년 현재에는 초등돌봄전담사로 불리고 있다. '돌봄'은 돌봄노동, 아이돌보미, 노

인요양돌봄, 돌봄간병사 등 최근들어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이지만 이 단어에는 교육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에서는 보호와 교육을 함께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돌봄강사’ ‘돌봄전담사’라는 명칭보다 ‘초등보육교사’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초등돌봄강사는 학교 구성원이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해 아동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므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일정에 맞게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용이하고, 초등돌봄강사의 업무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아동의 행동지도와 상담을 위해서는 오전과 오후에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초등돌봄강사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담임교사와 초등돌봄강사와의 정기적인 연계를 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강사는 매일 아동을 만나지만 특기·적성 강사는 일주일에 2~4시간만 정해진 요일에 만난다. 그럼에도 특기·적성 강사는 교무부 소속으로, 초등돌봄강사는 행정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등돌봄강사는 그들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학교 교원이 아니고 비정규직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초등돌봄강사들의 자존감에 상처되는 일이 된다. 그리고 초등돌봄강사의 업무 성격을 보더라도 학교 회계 업무가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업무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초등돌봄강사의 학교내 소속을 행정실이 아닌 교무부 소속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초등돌봄 교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은 방과후 시간에 이뤄지기는 하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된다. 따라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은 사회적기업에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방과후 학교 사업에서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학교내 전담 교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동을 만나는 시간, 책임감, 지도 내용, 근무 형태 등을 보았을 때 초등돌봄강사의 직무는 특기·적성 강사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등돌봄교실의 프로그램 또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돌봄교실 담당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통일된 급여체계 마련, 휴직허용범위 확대, 경력인정,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급여체계를 제공하고 지방자체단체마다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은 초등돌봄강사의 신분안정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급여 뿐 아니라 상여금 이외에 장기근무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수당도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학교회계직으로 속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다른 학교 근무자와 달리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급여와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근무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초등돌봄강사로 장시간 종사한 경력자가 초등돌봄교실에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위해서는 이들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경험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급여체계에 장기근무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된다. 정기적인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초등돌봄교실 교사들이 아동발달이나 학교 교과과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때 교사 연수 프로그램 비용은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연수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여, 초등돌봄 담당 교사들이 비용 걱정 없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돌봄교실 운영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조교사 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 현실화해야 한다. 초등돌봄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9.6%가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나 보조교사의 활용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대학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된다. 초등돌봄강사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교사 대 아동수는 11~15명(57.6%)이 가장 많았다. 교사 대 아동의 효율적인 상호작용과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15명 미만의 아동을 정원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시에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평가 틀을 구성하여 평가위원단, 평가과정, 평가지표 등에 대한 세부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면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 수준 향상도 동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메뉴얼
- 김홍원·임현성·김유리·양애경·정영모 (2010). 2010년 방과후 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노성향 (2007).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서영숙 (2011). 초등 돌봄교실의 성격과 발전과제. 방과후학교 학회 창립을 위한 2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서영숙·박진옥·서혜전 (2009). 방과후아동지도. **아동학회지**, 30(6), 281-295.
- 서혜전 (2011). 초등돌봄교실의 성격과 발전과제 토론. 방과후학교 학회 창립을 위한 2차 학

술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신경숙 (2011). 돌봄교사에 대한 개선 의견. 학교비정규직정책자문회의 보고서.

우삼제 (2011).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광역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Teachers'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Youngsook Suh · Jinok Park · Sunghyang Rho

This study was intended to seek the ways of improving of elementary school age care(ESACE) teachers'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expected to give suggestions in establishing the standards of ESACE teachers'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for quality before- and after-school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 survey data of 410 ESACE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stablish the process of ESACE teacher employment and Change ESACE teacher's position to a permanent position. Second, Set up the guidelines of ESACE teacher's position. Third, Separate ESACE class from after other school programs and Establish legal base. Forth, Set up the guidelines of ESACE teacher's working conditions and Provide teacher development programs.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age care, teachers' working conditions